

한달에 한번이나 되돌아하며
금주일언
 몸이 마칠때 까지 제사 지내길
 쉬지 아니하여도 잠시나마 한 마음으로 밤을 생각한
 만 못하다 한 생각으로 북을 치는 것이 저 제사로
 몸을 마치는 것보다 낫다 <범구경 순천동 131절>

東大新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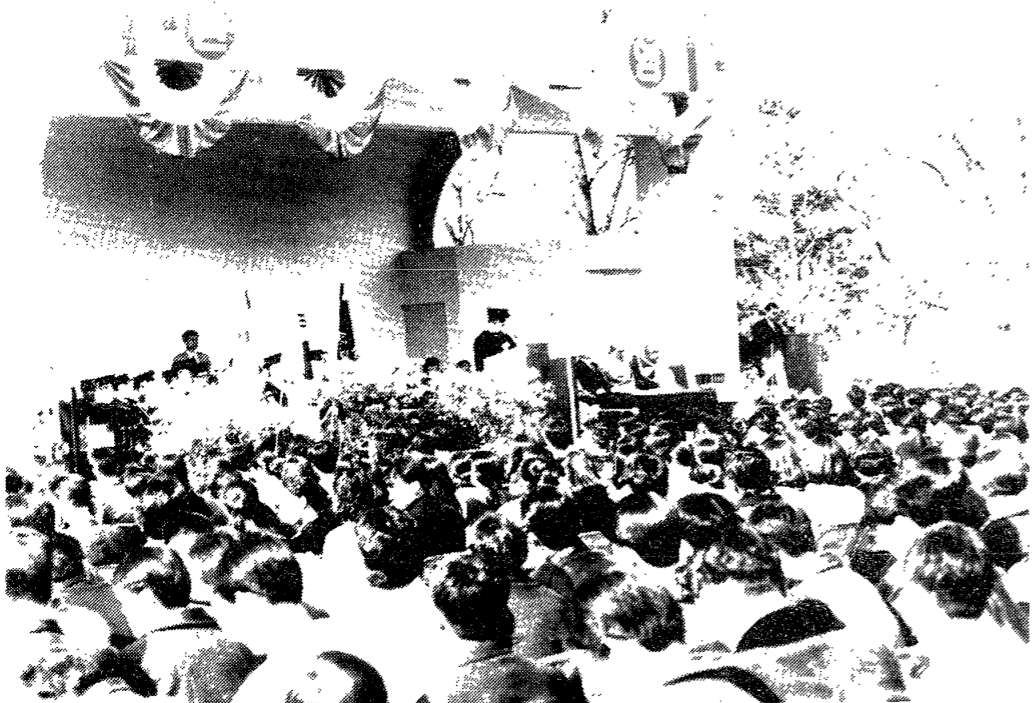
발행처	경북대학교 동대신문사
편집인	김주영
주필	김주영
인사	김주영
발행일	1994년 3월 2일
발행시간	오전 10시
인쇄	인쇄
발행부수	100-715
판매처	경북대학교 동대신문사
전화	100-715
팩스	100-715
주소	경북대학교 동대신문사
우편번호	707-707

제 1142 호 (주간)

1994 1 1 1994년 3월 2일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4년 (불기 2538년) 3월 2일 (수요일)



동국인 4천5백여명 새로 맞아

94학년도 서울캠퍼스 신입생 총 2천5백70명에 대한 입학식이 오늘(2일) 11시 민회광장에서 열렸다. 민병천총장, 오복원이사장, 황영수총동장회장을 비롯한 재단이사, 학부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입학식은 △삼각의례 △국인외래 △입학허가서인 △신입생선서 △총장 식사 △이사장 치사 △총동장회장 축사 △장학증서 수여 △화, 차, 실장 및 부속기관장 소개 △교기제창 △사홍서원등의 순서로

취루진다. 한편 총 5백점 만점중 4백70점으로 진수수석을 차지한 박세진(법공1)은 신입생 대표선서에 이어 21C 장학증서를 수여 받았다. 민병천총장은 "치열한 입시경쟁에서 승리한 것을 축하한다"며 "거듭나는 정신과 창조적 기상을 실현할 것"을 당부했다. 입학식사에서 오복원이사장은 "학부부들이 흘렸던 눈물과 땀에 대한 보답은 바로 '실실한 인격으로 성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경주캠퍼스 94학년도 신입생 1천7백76명에 대한 입학식이 오는 4일 오전 11시 총장, 이사장, 학내외 빈, 학부모, 신입생 및 재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문무관에서 열렸다. 이날 입학식은 입학허가서인, 신입생선서, 총장·이사장 식사, 장학증서 수여순으로 진행되며 수석 입학자 이용환(한예1)군이 신입생 선서를 한다.

새내기 새로배움터 성황리 마쳐

학교당국과 제26대 총학생회(회장=박현식·전기4)가 공동주최하는 새내기 새로배움터가 교수, 직원, 재학생과 신입생들 3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양평 프라자 리조트에서 2차에 걸쳐 열렸다. 이번 새로배움터는 1진(문과대, 경상대, 예체대, 사범대, 야간강좌)과 2진(농과대, 이과대, 공과대, 법과대, 사과대)으로 나뉘어 각 2박3일씩 진행되며 불교대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김제 금산사에서 3박4일 일정으로 따로 진행됐다. 예년과 달리 신입생 수강신청이 이번 새로배움터 일정에 포함되어 신입생은 이 기간내 수강신청을 했다.

새내기기간중 학생복지위원회는 점심과 저녁 두차례에 걸쳐 녹차, 썬차, 대추차, 울무차등 전용차 무료 사용회를 가져 많은 호응을 얻기도 했다. △불교대=2월23일부터 1박2일간 경주국민호텔인문대=2월24일부터 2박3일간 양산 다량위 캠프장 △사연대, 상경대, 법정대, 외대, 총학생회 연합=2월25일부터 2박3일간 양산 해운자연농원

했다. △불교대=2월23일부터 1박2일간 경주국민호텔인문대=2월24일부터 2박3일간 양산 다량위 캠프장 △사연대, 상경대, 법정대, 외대, 총학생회 연합=2월25일부터 2박3일간 양산 해운자연농원

등록금 14%인상

94학년도 등록금이 14%인상 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관련기사 3·7면) 제26대 총학생회(회장=박현식·전기4)는 지난 27일과 28일 각각 총학생회 운영위원회를 갖고 등록금 14%인상과 동국중흥학마당 개최, 동국발전위원회 구성, 학교 자체평가 결과 공개 등을 학교당국과 합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7일과 28일 열린 총학생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제26대 총학생회는 합의내용을 공유하고 인준 받으려 했으나 총학생회 운영위원회는 합의내용에 대한 구체적 근거 미흡, 합의발부에 있어 가장 중요한 대안적 동의부족등의 이유를 들어 합의내용에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힌 상태이다. 이에 대해 제26대 총학생회는 등록금 합의가 단순히 얼마를 깎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학교발전의 상을 그려나가는 자리이고 현재 모든 대학들의 사정으로 볼 때 법적근거로 등록금 인상을 정하는 학교가 있을 수 없으므로 14%

인상근거는 그리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설명하며 이러한 협상안을 거부하고 있는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도 별다른 협상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학교당국과 합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학교당국 역시 이미 14%인상된 고지서를 제작한 상태이며 총학생회와의 합의안을 기다리고 있으나 여의치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야간강좌와 총학생회장 최유찬(영문과)군은 "총학생회측이나 학교당국에서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금 협상의 합의나 일방발부를 할 경우 합의내용이나 등록금 인상률에 대한 전면 백지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까지의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등록금고지서의 완전한 합의발부는 어려운 것으로 예상되며 등록금 고지서가 금주내로 발부될 경우 예년의 등록금 협상에서처럼 학교와 학생회간의 심한 마찰이 예상된다.

교육대학원 졸업생 서화 기증

서예 한국화 서양화등 18점

교육대학원 미술전공 졸업생 17명이 자신들의 작품, 서화 18점을 개교 1백주년 사업본부에 기탁해 왔다. 이들 중은 화가 17명은 지난 21일 그동안 준비해 왔던 서예, 한국화, 서양화등의 서화 18점을 표구제작하여 1백주년 사업본부에 기탁했으며 기념 사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함이라는 뜻도 함께 전해왔다. 1백주년 사업본부의 한 관계자는 이들 작품에 대해 "대부분이 국전 입상작들로 이뤄진 수준높은 작품들이며 앞으로 발전 기금조성사업에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 작품들은 1백주년 사업본부에서 보관하다가 전시판매 또는 개별 판매하여 사업 기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기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우희준(한국화·장미) △송진세(서양화·환생-풍동종준) △정영남(한국화·환생) △정대원(한국화·산수) △신현조(한국화·화국국화) △이홍남(서예·이백 시) △김정용(한국화·포도) △이영환(한국화·환생-신들의 도시) △이관성(한국화·성화) △김정국(한국화·여름) △성용재(한국화·산수) △

보리수

사상공하(私上公下)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개인(私)과 단체(公)에 대한 질서외의 문제는 항상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다. 공적인 문제에 대한 사적인 견해는 그 공적인 대의 명분을 앞세우고 심지어 그 대의 명분을 위하여는 개인의 사적인 희생도 불사를 요구하는 것이 대승(大乘)의 견지라고도 하였다. 사회의 도덕과 국가의 법규가 그러한 바탕에서 기초하게 되었고 모든 조직의 수직적 수평적인 관계 역시 그러한 질서 유지의 관계에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그 질서 유지의 기본인 공과 사의 문제는 그 사회와 단체의 의식을 측정하는 척도와 수준이 되어왔다. 중국 선종(禪宗)의 종합수도원인 총림에서 어느 큰 스님이 총림 운영의 책임을 맡게 되었다. 당시의 보직기간은 매 일년마다 교체되는 단번제와 같은 제도로써 그 기간의 책임을 마치면 일 반 평대중으로 돌아가 옛날과 같이 수행승으로 남게되어 있었다. 이 수행승으로 남게되어 있는 것은 이의 이익을 균형있게 유지하고 있었다. 그 스님은 총림의 업무를 볼때나 아니면 개인의 경전 공부를 할 때는 언제나 등단을 두개를 준비하여 그 용도를 달리 하였다. 그리고 기쁘든 사중(寺中)과 개인것을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 등단의 상하의 위치도 특이하여 개인 용의 등단은 위에 두고 사중(寺中)의 등단은 아래에 두었다. 어

는 스님이 그 까닭을 묻자 그 스님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만일 내 개인의 등법의 기쁨이 흘러 아래에 사중 등단에 떨어져 보태어지는 것은 가(何)하지만 반대로 사중의 등법의 기쁨이 내 개인의 등단에 떨어지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하였다. 이두개의 등단의 고사는 오늘날까지도 총림운영의 보직자들에게 그 책임의 정신을 깨닫게하는 경구(警句)로 정해져 오고 있다. 누가 어느쪽에 보태어 되어야 하는가 하는 옛날의 고사는 우리나라에도 전해져 오는데 한가지 있다. '스님이 절에서 쫓겨나도 절 나무 베는것(도벌)을 보면 씩웃는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는 자기의 불이익을 잊고 오직 전체를 위하는 봉사와 희생의 정신을 일깨워주는 교훈적인 고사이다. 오늘 우리들의 주변을 살펴보면 이 등단의 위치가 바뀌어 공상(公上)사하(私下)로된 모습을 반 평대중으로 돌아가 옛날과 같이 수행승으로 남게되어 있는 것은 이의 이익을 균형있게 유지하고 노력하고 오히려 보태어 되려고 봉사와 희생을 하는 자를 우리는 성실한 개인이라 하고 화합의 구성원이라고 하고 참다운 불자라고 한다. 불교의 이상인 보살들이 사는 세계란 서로가 손해(손사)를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화성기교수님의 말씀을 상기하고 싶다. 崔法慧

알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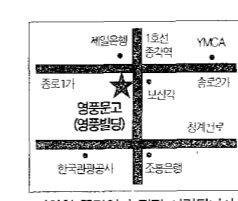
제36기 수습기자 모집

대학원생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본지에서는 우리시대를 예리한 필봉으로 파헤쳐 나갈 시의적절한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①모집인원:서울 및 경주캠퍼스 00명 ②응시자격:1학년 남·여제학생 ③모집분야:일반 및 문화·사건기자 ④제출서류:본사 소정양식 1통, 명함판사진 1매 (지원서는 본사 총무부에서 배부중) ⑤원서접수:서울 3월17일(목) 오후4시까지, 경주 3월17일(목) 오후5시까지 ⑥시험일자:서울 3월17일(목) 오후5시, 경주 3월17일(목) 오후5시 ⑦시험과목:1차 필기(사상·논술(문화·사건지원자는 실기) 2차 면접(1차합격자에 한함) ⑧원서제출처:본사 총무부 1201(서울캠퍼스) ⑨시험장소:원효관 A301(경주캠퍼스) ※학생기자에게는 규정에 의해 장학금과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동대신문사

영풍문고, 신세대 대학인을 위한 지성의 공간!



- 모든 책이 다 있는 서점
- 신학기 대학교재 및 외국 원서교재를 완벽하게 갖춘 서점
- 무슨 책이든 즉시 찾을 수 있는 가장 편리한 서점
- 국내 최대의 종합문구점, 초현대식 음반점이 함께 있는 복합서점
- 아늑하고 우아한 분위기, 효율적인 공간구성의 쾌적한 서점
- 편리한 교통, 안락한 휴식공간으로 만족을 주는 매력적인 서점
- 도서안내 399-5656, 399-5678
- 예매권 399-5616, 399-5617



지성의 향기로 가득한 복합문화공간
영풍문고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33 Tel. 399-5600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감오농민전쟁기사, 문학과 연관 돋보여

어느덧 학교에 입학한지 1년이 지났다. 작년 대학이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던 때 학교 구경에서 처음 펴 본 동대신문, 졸업소식과 등록금 합의를 작년과 같은 기사들을 보며 새로운 감회를 느꼈다. 이번 1141호 동대신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기사는 감오농민전쟁에 대한 기사와 김남주시인 추모에 관한 기사였다.

감오농민전쟁 1백주년 되는 해라서 각 신문에서 기획기사로 다루는 흔한 주제가 된듯 하지만 다른 신문에서 잘 보지 못한 문학(특히 민요)과의 연관이 돋보인 기사였다.

김남주시인에 대한 기사도 무난했으나 이왕이면 시도 같이 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서희원 (문과대 국문과·본사 모니터)

편집변화 긍정적 충실한 내용 기대

먼저 이번 동대신문은 1년의 기획광고관에서 볼 수 있듯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로 편집이 많이 바뀌었다.

첫째로 글자체가 커졌고 외간선이 없어졌으며 1.7면의 단간선이 없어졌다. 이것은 예전의 편집에 비해 깨끗하고 보기에 편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예전의 동대신문에서는 무엇이 중요기사인지 쉽게 알 수 있었는데 지금의 편집은 어디가 중요한지 몰라서 어디에 먼저 눈을 두어야 할지 모르겠다. 이것은 기사의 글자가 커진만큼 타이틀의 글자가 상대적으로 작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로 칼럼을 새롭게 했고 각면의 성격은 면 외부에 표기된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런 동대신문의 새로운 변화에 많은 학우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변화를 시도한 이번 졸업호가 청탁기사에 비해 취재기사가 너무나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 여러 사회에서 변화를 외치고 다시 한번 합치기 싸움이라고 외치는 이때 동대신문사 기자들은 청탁에 많이 의존하고 조금은 뛰어난 소홀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의 변화에서처럼 새롭게 변화한 동대신문에 맞게 열심히 뛰는 그런 동대신문 기자의 본연의 모습을 기대한다.

고재환 (상경대 국제경제학과·본사 모니터)

열린 글터

개성있는 목소리를 가진 동대인을 찾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글, 사진 만화를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문의는 (02)260-3419-2 (0561)770-2057

불법 아르바이트(?)

게시판 부족으로 인한 모순 느껴

방학이 되자마자 무엇이든 해야겠다는 생각에 각종 주간 정보지의 구인란을 살펴 보았고 거리를 돌아 다녔지만 시간이나 보수등 내 조건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다. 결국 가수의 공연 포스터를 거리에 붙이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별로 힘든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소위 스티카라는 것을 끊게 되었다. 잘못했다며 사정을 했지만 몰랐어도 죄는 죄였다. 대학에 다니는 지성인이라 하는 사람이 그것도 법학을 배우는 사람이 솔직히 그 행위가 불법인지는 몰랐었다. 그렇다면 저 거리에 붙여진 수많은 각종 포스터가 불법이란 말인가. 갑자기 온 몇 분밖에 못했지 못했음을 하기가 싫어졌다. 그러나 어떻게 구한 일자리를 핑계로 결국 마지막까지 경찰의 눈을 피해 일했다. 그렇지만 법학과 학생이 불법행위를 단순히 돈 몇푼 때문에 일했다는 것이 수치스럽게 느껴졌다. 그러나 그 일은 비록 불법행위였지만 무조건 단속하고 규제하는 것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홍보를 위해 포스터를 붙여야 하는 공연회사측이 그것이 불법인지 모를리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연게시판이 얼마나 부족한가. 그렇기때문에 회사측은 돈을 주고 사람을 시켜서라도 홍보를 해야 하는 것이었다. 한 동사무소 직원이 우리를 보고 당신같은 사람을 때문에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으로 포스터를 제거할 사람을 돈을 주고 산다고 했다. 한 대학생은 시간당 이천원씩

수화동아리 회원으로서 이번 새터 공연을 준비하며 많은 걸 느꼈다. 이번에는 몇 개의 동아리가 모여 처음으로 연합공연을 했는데 내가 참여하게 된 동기는 예전엔 없었던 동아리끼리의 연대감 조성 의지에 호감이 갔기 때문이었으며 지금 돌아 보니 나름대로 참여 동아리

서로의 연대감 조성에는 성공적이었다고 느껴진다. 또한 공연 성과에 대해서도 대단히 보람을 느끼게 된다.

봉사부와 동아리로서 이번 공연에 참여, 연습하는 과정에서 가장 신경을 썼던 일은 우리 생활의 일 부이며 40만명 각 장애학우의 언어 수단인 '수화'에 대한 에티켓이 누가 되거나 없을까하는 우려였으며, 그 외에도 연습시간 부족 등으로 인한, 자체적 완성도에 대한 불안감은 잠시 힘들게 느껴지기도 했다.

'국'의 연출과정에서도 애매한 부분이 있었지만 생각이 난감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공연을 마친뒤의 느낌은 행복에 가까웠으며 모든 동아리의 참여의식과 성공의지에 다소 감탄하기도 했다. 모든 참여동아리의 출연진, 스태프, 연출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수화동아리로서 수화, 청각 장애학우를 위한 동아리 활동을 홍보하는데 성공했다는 보람으로 행복한 심정이다.

이성기 (공과대 건축공학과)

청소년을 위한 불서발간시도

달고한 기쁨에 쌓인 피곤도 잊혀져

가만히 돌이켜 보면, 이번 방학 만큼 바쁘게 살며 가는 시간을 아쉬워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두달이라는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간동안에 책을 한 권 만든다는 것은 그야말로 장난이 아니었다. 그저 청소년을 상대로한 마땅한 불서적이지 않다는 것이 아쉬워 무작정 달려온 나에게는 더욱 그러했다. 참신한 내용, 폭탄 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굳은 머리를 깨는 작업만도 2주라는 시간이 걸렸다.

때로는 머리를 쥐어 뜯으며, 때로는 밤나 앉아있다가는 갑자기 피성을 질러대는 우리는 거의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다.

이름 해산한 산모의 마음이라고나 할까?

나는 이렇게 두달을 보냈다. 어느 후회하지 않을 시간들이다. 내 인생에 있어서도 소중한 경험으로 간직될 것이다.

유병호 (사범대 영교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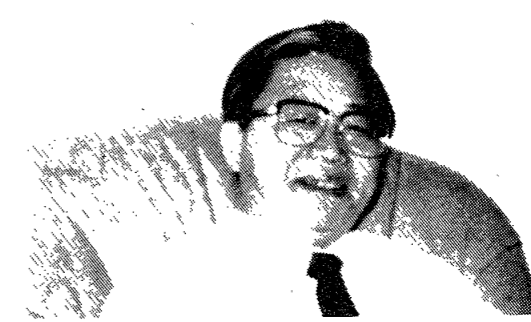
모니터원 모집!

한 학기동안 동대신문을 모니터링 할 모니터원을 모집합니다. 모니터원은 동대신문과 독자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의 역할과 함께 매주 발행되는 신문의 평가를 담당하게 됩니다.

모집기간은 오는 18일 까지이며 관심있는분은 동대신문사로 연락바랍니다.

여론대체부

오늘을 사는 동국인 - 여익구 동문



"이제야 비로소 사회의 일원이 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74년 민청학련사건때의 구속을 시작으로 다섯번의 감옥행, 수도 생생할, 노동자로서의 삶을 거쳐 27년만에 졸업에 맞는 여익구(사학 94졸) 동문의 감회는 남달랐다.

무엇보다 올해 79살인 어머니가 시작모교로 사진찍는 모습을 보게되어 가장 기뻐하며 무언가 통과례를 거치지 않은 듯한 자신이 어머니의 눈을 통해서 사회인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67년 경영학과에 입학했으나 단체 신체의 '아와 비아의 투쟁'에 관한 사관을 접하고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회학과 진로를 바꿨다. 역사학에 눈을 뜨게 되었다고 말하는 여동문은 그때부터 역사적 삶을 살 것을 다짐했다.

그러다가 민청학련사건으로 구속되고 출소한 후 신념을 갖고자 했던 자신에 대한 실망감으로 고뇌하다 스님이 될 것을 결심하게 되고 5년동안 생활했으나 도는 산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느껴 환속했다.

"신세대요? 구세대가 된장과 김치로 인식된다면 피자와 단컨도 너스레 대포되는 세대 아닐까요?"라고 말하는 여동문은 이념에서 기능사대로 변화함에 따라 학생운동 또한 구체적인 권의 투쟁을 전개하는 신세대 논리를 맞춰갈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얼마전 사문회때 "나이는 많이 들었지만 동료의식을 느끼고 어깨를 같이해서 기본이 관철이다"는 여익구동문은 올해 본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했다. 축소된듯 웃으면서 수강시간표를 보여주는 여동문은 '노인복지'를 전공해보고 싶다고 말한다.

결코 순탄치 않은 진로의 삶을 살아온 여익구동문은 후배들에게 권고한다. "변화를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개혁적 자세를 지니자!" (김소영 기자)

동/문/칼/럼 '신장개업'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말이 있다. 근본적인 변화를 꾀함이 없이 형식적인 변화만을 통하여 주어 진 어려운 상황을 피하려만 하는, 과거와 비교해서 본질적인 변화가 없을 때 쓰는 말이다. 이말과 잘 어울리는 또하나의 표현이 '신장개업'이 아닌가 싶다. 손님에 대한 영주의 사고방식은 바뀌지 않은채, 적당히 페인트칠이나 해서 마치 새로운 무엇이 등장한 것처럼 보이려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이다.

새해가 되면 대학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가 이런 형태의 신장개업을 하는 경우가 제법 많은 것이다. 개인도 물론 그렇다.

유수하다는 모 대학의 물리학과 실험실 기계 가운데, 1950년대부터 사용하던 것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일제시대에 쓰던 기자재가 TV 카메라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낸다. 수억원을 주고 사온 컴퓨터 관련 기자재가 사용자가 없어서 방치되어 있기도 하다.

30년전의 강의 노트가 사용되기도 한다고 방송기자가 목격해 들은다. 때로 대학1학년은 고교4학년에

해당하기도 한다. 위장형 신장개업의 특징은 조잡한 단순모방에 있다. 노태우 시절 '위대한 보통사람의 시대'라는 구호가 한 시기를 풍미했던 때가 있었다.

우연일까? 일본광고사에게 발견한 '普通人의 시대'라는 문구가 92년 대선을 전후해서 '신한국'이라는 구호가 전국을 뒤덮었고 지금도 그 구호는 모든 국가적 가치의 근원쯤에 해당하고 있다.

한 일남중 '개혁'이라는 구호가 바람을 타더니 요즘 '국가정책'이 상당히 특색하고 있다. 용어 자체에서부터 웬지 일본군국주의의 냄새가 풍겨나는 느낌이 드는 것은 과민반응일까?

올해 서울을 나라의 중심으로 삼은지 6백년이 되는 해라고 한다. 조상님들께는 의뢰된 말씀인지 모르겠으나, 이 나라가 과연 민주 국가인가하는 의문이 있다. 오히려 세습군주국에 가까운 것은 아닌지하는 생각이 든다. 그것이 무슨 이론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지난 2회에 걸친 대선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중에 하나는 전임

자의 후계자로 낙점받기 위해서 후보에상자들이 상상을 벗어난 행위를 당당하게 해치웠다. 민주적 절차인 정당대회는 단지 통과례에 불과했다.

자이 신물나는 신장개업은 그만 두어야 한다. 머리속에 들어있는 복사책은 태워버려야 한다. 복사기들에서 시작하지 말고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실제부터 내가 해서 쓰기 편한 내 집을 내손으로 직접 만들어 보아야 한다.

권대용 (민주당 사회문화과 부국장)

목 먹골

축하합니다.

■ 하루가 지났지만 3월1일은 친구 정해의 생일입니다. 축하합니다. -훈

■ 국어교육과 94학번 새내기 여러분,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문을 활짝 열어 환영합니다. Be Happy!! -국교과 선배

■ 佛敎학과 '94새내기 여러분 불교학과에 입학하신킨것을 허벌나게 축하합니다. -찌빠 그리고 사론스톤

■ 야간강좌 새내기 여러분! 입학을 축하합니다. -야간강좌 학생동아리 「여명」

■ D-U-T-C 졸업 축하드립니다. Once D-U-T-C, forever D-U-T-C! 행복하세요 영원히. -후배들

■ 이름표를 아가에게 입학 축하드립니다. 동국대 호우회를 찾아 주신걸 감사하며 알뜰히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근대 중위

■ 우리 사랑하는 농경과 94학번 후배들의 입학을 축하하며. -선배 '93光

■ 화공과에 입학하신 여러 후배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화공 '93 중A, 은철이두

■ 경제학과 새내기 여러분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하며요. 멋진 대학 생활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선배 일동

■ 광원이 형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사회 '89일동

■ 산림자원학과 새내기 여러분 O-T 무사히 다녀온것을 축하합니다. -'92일동

■ 사회학과 새내기 여러분 환영합니다. -'93 현내기

■ 회계(야)신입생 여러분 입학 축하합니다. -제10대 회계학과 학생회(야)

■ 회계 새내기 여러분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93학번 일동

■ 수학과 '94새내기 여러분 입학을 축하하며 이제 참 인간의 관계로 만납시다. -수학과 노명

■ 화산이 졸업축하해! 너도 졸업하는구나. 역시 대학은 좋아, 놀아

동/약/광/장

■ 윤진선배 졸업 축하드리며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래요. -이종찬

그리고...

■ 물리학과 새내기를 잘살아라. 진화도 잘. -'92 時正

■ 산자와 '92김광진의 후학을 과 차원에서 환영합니다. 쫓쫓... -'92 時正

■ 광고 동아리 ADRUSH 위기에 빠졌다. 회원 여러분 힘을 내시다!! -전 회장

■ 우리만 연구회 제4기장이 드디어 뽑혔습니다! 은숙이를 우리 모두 이빠해 줘시다. 그리고 '94국교과 새내기들이 즐거운 대학생활을 누리길 바랍니다. -3기장이

■ 강해지고 싶은 男子, 弱해지고 싶은 女子. -검도부(건)

■ 94학번 새내기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태어나는 국제경제학과 여러분, 우리의 하나된 모습으로 국제적인 화과로 만들어 봅시다. -국제경제학과 윤태일

■ 관광경영학과 졸업생 여러분! 졸업 축하드립니다. -학생회장

■ 철학과 94학번 새내기 여러분,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민중 철학 지부장

■ 동문행! 졸업 무사히 하신거 축하드립니다. 밖에 나가시더라도 그 솔직한 만큼은 잊지마세요. -원샷

■ 현호, 건성, 재형, 은영 첫 데뷔공연을 진심으로 축하해. 앞으로도 열심히 하렴. -해몽사관 1기

■ 3월 1일 성숙이의 생일을 형들과 동기 모두가 축하한다. -35기 일동

■ 동국대학교 93학년도 학위수여를 한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경제'87 장기철 밀리터리

■ 3월8일 철학과 은영이의 생일을 축하하며. -희석이가

■ 순현이형과 상봉형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쁜 후배들

수고하셨습니다

■ 학원의 진보를 위해 노력하시는 11대 총학생회 간부여러분, 인문대 그리고 각 단과 학생회 일원 여러분 수고하십시오. 열심히 투쟁하시고요. -10대 총학생회장

■ 선배님, 동기를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욱 멋진 일생이 됩시다. -일생 회장

■ D-K-B-S 12기 정국원 신고식을 Congratulations한다. -?

■ 졸업생 여러분! 졸업하시느라 얼마나 힘든 인고의 세월을 거치셨습니까? 이제 활개를 펴고 사회에 진출 그 뜻을 유감없이 발휘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솔몬 군만두

열심히 합시다.

■ D-K-B-S 고재! 너 열심히 해서 이 누나한테 사랑받어. -D-K-B

■ 국제경제학과 신입생 여러분!

은방골

축하합니다.

■ 윤진선배 졸업 축하드리며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래요. -이종찬

그리고...

■ 물리학과 새내기를 잘살아라. 진화도 잘. -'92 時正

■ 산자와 '92김광진의 후학을 과 차원에서 환영합니다. 쫓쫓... -'92 時正

■ 광고 동아리 ADRUSH 위기에 빠졌다. 회원 여러분 힘을 내시다!! -전 회장

■ 우리만 연구회 제4기장이 드디어 뽑혔습니다! 은숙이를 우리 모두 이빠해 줘시다. 그리고 '94국교과 새내기들이 즐거운 대학생활을 누리길 바랍니다. -3기장이

■ 강해지고 싶은 男子, 弱해지고 싶은 女子. -검도부(건)

■ 94학번 새내기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태어나는 국제경제학과 여러분, 우리의 하나된 모습으로 국제적인 화과로 만들어 봅시다. -국제경제학과 윤태일

■ 관광경영학과 졸업생 여러분! 졸업 축하드립니다. -학생회장

■ 철학과 94학번 새내기 여러분,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민중 철학 지부장

■ 동문행! 졸업 무사히 하신거 축하드립니다. 밖에 나가시더라도 그 솔직한 만큼은 잊지마세요. -원샷

■ 현호, 건성, 재형, 은영 첫 데뷔공연을 진심으로 축하해. 앞으로도 열심히 하렴. -해몽사관 1기

■ 3월 1일 성숙이의 생일을 형들과 동기 모두가 축하한다. -35기 일동

■ 동국대학교 93학년도 학위수여를 한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경제'87 장기철 밀리터리

■ 3월8일 철학과 은영이의 생일을 축하하며. -희석이가

■ 순현이형과 상봉형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쁜 후배들

수고하셨습니다

■ 학원의 진보를 위해 노력하시는 11대 총학생회 간부여러분, 인문대 그리고 각 단과 학생회 일원 여러분 수고하십시오. 열심히 투쟁하시고요. -10대 총학생회장

■ 선배님, 동기를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욱 멋진 일생이 됩시다. -일생 회장

■ D-K-B-S 12기 정국원 신고식을 Congratulations한다. -?

■ 졸업생 여러분! 졸업하시느라 얼마나 힘든 인고의 세월을 거치셨습니까? 이제 활개를 펴고 사회에 진출 그 뜻을 유감없이 발휘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솔몬 군만두

열심히 합시다.

■ D-K-B-S 고재! 너 열심히 해서 이 누나한테 사랑받어. -D-K-B

■ 국제경제학과 신입생 여러분!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늘상 그랬듯이, '신한국의 건설'을 간판으로 내건 새 정부도 사회 곳곳에 만연된 부정을 척결하여 깨끗한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제 출범 1주년을 맞아 여기저기서 찬사가 주춤 이루는 긍정적 평가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 긍정적 평가는 이미 예견된 것이고 그간 솔하게 들어 온 것이어서, 어떤 어느 정도 지겨움마저 느끼게 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이 아닌가 싶다. 새 정권 초기의 평가란 것이 미흡한 부분은 변함만 울리고 지나치면서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 미화하기 마련이지만, 어쨌든 확실히 달라진 게 있다면, 그것은 문민정치의 시대에 들어섰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군인 출신이 아니라는 점 외에 우리가 정작 문민정치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는 별로 실감하지 않는다. 아직도 평가가 정리가 되어 어수선한 듯한 대학입시제도는 문민정치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아 줄 수는 있지만, 기독교 신자임을 공공연히 표방하는 대통령을 맞아 더욱 기세를 부리는 듯한 종교계의 사건들을 보노라면, 신한국의 정책에는 종교 문제가 방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이미 우리는 몇 년 전에 '오대양 사건'이라는 집단 자살의 참상을 목격하면서 종교가 자칫하면 비극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한 바 있다. 그리고 바로 전 정권의 탈기에는 자기들만이 중방의 자유에서 탈출하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유기 소공'을 통해 종교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역기능을 목격한 바 있다. 이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고 그 파문이 미처 가라앉지도 않았는데, 새 정권이 들어서기 이전에는 영생과 비리, 급기야는 한 종교 연구자의 실재라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우리는 문민정치시대의 시각적대를 실감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총과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여파를 야기한 이러한 사건들이

모두 기독교 내에서 발생했다는 점은 특히 유감스럽다. 전 정권의 말기에 실세였고 현재는 정부의 수반인 김영삼 대통령이 한 기독교 교파의 장로라는 개인적 입장에서 종교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각별한 의식과 대안을 강구했을 법한데도, '문민정치'의 어느 구석에서도 그런 고심의 흔적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통령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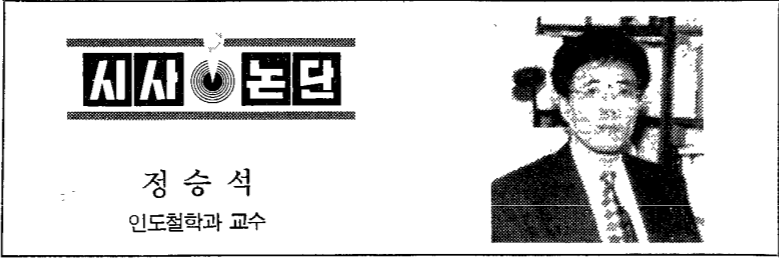
대통령의 종교적 편향은 한층 우려되던 터에, 말단 공무원이 사찰의 안내관을 첩거하는 일도 벌어졌고, 급기야는 어느 사단의 지휘관이 군법당을 폐쇄하고 불상을 훼손한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작년에 발생했던 이 사건이 불교계에서는 10대뉴스로 꼽힐 만큼 첨예의 관심사였음에도 당국이 이 사건을 대수롭지 않은 일인 듯 얼버무리고

포교 활동을 하는 집단이다. 그러나 장교라는 신분 때문에 각 군종 장교의 수는 국방부에서 규제하고 있는데, 그 수는 압도적으로 개신교에 편향되어 있다. 언뜻 보면 개신교의 신자가 그만큼 많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각 군종 장교 한 사람이 담당하는 사병의 수는 목사가 9백22명, 신부가 1천2백75명, 불교의 법사가 1천8백67명이다. 결국 신자의 숫자와는 무관하게 개신교의 군종 장교를 불교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선발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불균형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종교분야에서 만큼은 새 정권이 기존의 정권과 전혀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종교 분야에서 정작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새 정부의 중요한 정책이 종교 집단의 특수성을 애초에 고려하지 않은 채로 기획되고 실행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금융실명제, 종합토지세, 토지초과이익세와 같은 국가적 주요 시책이 개인이나 일반 사업자에게 적용되듯 종교집단에게도 적용됨으로써 심한 부작용과 반발을

낳고 있다. 단적으로 말해서 "과다한 부동산 보유가 고통이 되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종교집단의 사정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종교집단의 비영리 재산마저 고통의 원천이 되어 버렸다.

신한국 정부의 모든 정책에서는 종교가 아예 방기되어 말하는 것이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대통령이 발생할 때 몇 마디가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는 정책이 될 수는 없다. 종교는 정서가 불안한 현대인에게 갈수록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굳이 시대적 상황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종교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내용이 없이 문민정치를 운운할 수 있겠는가. 그 대응은 우선 그동안 종교적 편향을 교정하는 데서부터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편향의 극단적 사건의 원인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



정승석
인도철학과 교수

특정종교 편향-정책부재 '위험수위'

신한국의 종교 방기를 경고한다

취임하면서부터 그의 종교적 편향이 불교계에서 심각한 우려로 대두되었고, 실제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기도 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유명 목사를 초대하여 청와대에서 목회를 실시하였고, 청와대에 초대할 유명 목사의 명단까지 작성되었으며, 그 목회의 내용은 책으로 발간될 예정임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것이 비록 대통령 개인의 신앙행위라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독특한 신앙상을 과시함으로써 정치적 권위를 뒷받침하려는 의도인 양 비쳐지고, 또 특정 종교와의 차별을 공인하는 것인 양 인지되었다. 더욱이 특정 종교의 색채가 유별나게 돌출되는 일부 인사들이 각료로 발탁됨으로써

지나쳐서는 점에서도, 편파적인 종교 현황의 시정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신한국 정부의 종교 정책 부재를 엿볼 수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1년도 못되어 군대에 관시사가 되어 있는 기독교 내의 사건들이 발생한 이유를 이제 알만하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단독한 신심으로 예배를 보는 민중의 정성으로 종교 전반의 문제를 개선하려고 노력했다면, 이제껏 언급한 사건들이 그렇게 쉽사리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종교 시책이 가장 여실히 반영되는 곳은 군대 내부이다. 군종단은 사병들의 신앙생활을 위해 불교, 개신교, 천주교의 세 종교가 성직자를 군종 장교로 선발하여

들에 대한 비판을 담은 총학생회의 입장이었다.

어느 누구도 단정지을 수 없는 양쪽의 입장이다. 아니 한쪽의 양분된 입장이다.

총학생회의 입장을 정리하면 이렇다.

총운위의 7개 단체 학생회장들의 주장은 대단한 비판일 뿐이며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등록금 합의를 더 이상 늦추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재단 전입금이 법대로 들어온다면 등록금은 오히려 줄어들어야 하지만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 속에서 이러한 문제제의 제기를 통한 투쟁은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것이다. 그래서 학자투는 이제 투쟁일변도의 원칙적 제기를 떠나서 학내 문제를 스스로 제기하고 내가 만들어 가는 학교라는 인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에 맞서는 총운위의 입장 또한 단호하다.

먼저 14%인상의 근거가 부족하고 학생들과 공유되지 못하고 상위층만이 주도해나간 바람직하지 못

한 협상이며 만일 이대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제 모든 때는 뒤집어 졌다. 학교, 총학, 총운위는 다음 사안에 대한 준비에 들어갔다.

총학은 계속적인 투의와 논의속에서 총운위의 마찰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고 총운위는 합의의 전 단 백지와 투쟁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등록금 협상을 얘기할 때 단지 몇몇에 합의할 것인가에 매몰되지 말고 재단과 학교운영의 문제점 등 더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여기서는 단 1%를 부담하지 못해 학교를 그만 두어야만 하는 학생들은 항상 밀려나기 마련이다. 학생회 상층부의 단결된 모습과 그속에서의 학생 대다수의 신뢰가 중요한 때다.

적어도 서로를 비방하며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는 지금의 모습들은 이후 사안들에 대한 어떤 대응도 되지 못하는 것만은 틀림없을 것이다. (허동혁 기자)

등록금 협상 어디로가나 학생회 분열속에 학생들 갈피 못찾아

이제 새로운 질문을 던져야 할 때다. '어디로 가야할 것인가?' 총학생회와 학교측은 2달여동안에 걸친 협상의 줄다리기를 끝내고 그 줄로 서로의 다리를 묶었다. 이번 협상에서도 재단측은 자신의 발목을 내놓기를 거부했다. 이제 발 맞춰 한걸음 뛰어 나갈 것인가 아니면 뒤돌아 다시 각자의 길로 되돌아 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인 것이다.

어쨌든 이미 결정을 끝내고 뛰어갈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디로 갈 것인가?' 문제는 다시 등록금협상이다. 등록금 협상은 단기적으로 그해의 학원 자주와 운동의 수위를 결정한다는 면에서나 장기적으로 재

단과 학교의 교육 진흥에 대한 학생 참여와 요구를 수용시키는 중요한 카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차대한 사안인데 틀림없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대학 자율화 이후 매년 이맘때쯤이면 각 대학들이 여지없이 등록금 문제로 골머리를 썩는 것이 보통의 사실이다.

지난해 12월 학교측은 신입생 등록금 고지에서 인상을 16%를 명시함으로써 등록금 협상의 첫 패를 보였다. 그리고 사실상의 협상은 지난달 14일 가졌던 등록금 책정위원회 3차 협상에서 마무리 지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94학년도 등록금 14%인상, 동국중흥한마당 성사, 동국발전위원회

건설, 학생복지요구에 대한 공동 노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의 안건들이 나왔고 예년과는 달리 협상이 잘 풀리는 조짐을 보였다.

그러나 예년과 다른 모습은 또 있었다.

등록금 협상에 대한 의견차로 나타난 총운위 분열이 그것이다.

학교 후원을 이용하는 학생들이라면 지난달 28일 후문앞 게시판에 나타난 붉은 두개의 대자보를 보았을 것이다. 한쪽은 학생들이 공감하고 함께 하는 등록금 투쟁을 주장하며 현 등록금 협상의 모습들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사범대 학생회의 입장을 나타낸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러한 주장을 하며 등록금 협상 제동을 거는 총운위의 대다수 임원

2.17 기만적인 국방부 발표는 문민정부의 한계인가!

— 청년학생 양심수의 정상적 사회복귀를 강력히 촉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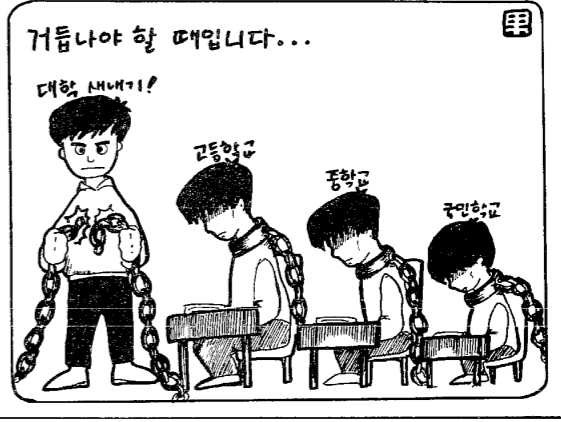
- * 93. 3. 25 대학 정원명 개정 - 시국관련 재적생 100% 전원 복직
- * 93. 12. 17 시국관련 수형자의 보충역 편입을 원하는 청년에 대한 국회의 대정부 권고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 청년학생 양심수의 정상적 사회복귀를 위한 서명 운동 - 총장, 교수, 국회의원, 성직자, 여성계 등 총 3,800여명 참가

— 2월 17일 국방부 발표안 —
“1년 이상 선고자중 만27세 이상인자에 한하여 병역 정, 소집면제”이 경우 507명의 양심수중 29%인 147명만 정상적인 사회복귀 가능

국방부의 발표안은 그동안 해당자 전원구제를 위한 국회의 청원취지와 각계 각종 인사들의 뜻과 의지에 반하는 아주 미흡한 조치로써 우리는 실망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작년 12월 양심수들을 제외한 국회의원들만의 사면복권 조치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문민정부에 불신을 보냈습니까? 이번 국방부의 2월 17일 발표안은 다시 한번, 우리 국민 모두를 기만하는 안이기에 각계 각종의 요구를 온전히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보다 획기적이고 전향적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동국만평

김상남



1994년 3월 1일 동국대학교 제26대 총학생회

한자조기교육, 언어생활 어지럽힐뿐 영어·제2외국어로 우리말 병든 상태 "버린 우상 다시 믿고 쫓을 때 아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눈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심지어는 한 사물을 두고 정반대의 시각까지 가질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스스로 믿는 바에 따라 다른 주장도 할 수 있다. 믿음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지 아니한가. 여기서 우리는 믿음을 어떤 사물에 대한 신념과 종교적 믿음을 구별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가장 쉬운 것은 인간을 뛰어넘은 어떤 초인, 신,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나 아니나 그 가닥을 틀 수 있을 것이다. 속이 드러나지 않게 속여 버리는 것이 인간이며, 믿음에 어디 정함이 따르고, 사이비가 따로 있었는가. 서양종교를 해서 정통이라고, 뜻을 의식으로 하는 무덤의 믿음을 미신이라고 하는 분별이 아직도 미안해 있는 이 땅에서 최근 한 종교연구자의 피살은 그가 정통종교인이라는 점에서 순교가 될 것이요, 그에 상응된 교파에서는 아마도 당연시, 그러나 미망의 징자가 될 것이다. 종교적 믿음조차 이처럼 범죄적 행위를 서슴지 않는 점과 그 사람 끌어들이는 방식의 반사회성 때문에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겠다. 어쨌든 그것이 종교적인 것이든 아니면 학문적인 것이든 그 좋은 힘 못지 않게 해로운 힘이 따른다는 점을 간파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서 문제다.

최근 우리 사회에 제미있는 논란거리로 등장해 있는 것의 하나가 조기교육 논란이다. 조기교육론은 인지의 발달과 동서 교류, 진통적 경험 등이 복합되어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를 형성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그 분야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데 조기진단이 필요할 것이며, 또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발견되면 일찍부터 개발

해 주는 것이 늦게 발견하고 늦게 가르치는 것보다는 나을 것은 자명한 일인 까닭이다. 물론 그것이 과연 개인·사회·국가에 긍정적인 보편을 주는구나 아니냐는 아직 검증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일부 천재적인 음악가나 예술가 따위의 예에서 그 성공적이라 할 사례를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보편적인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특수 집단에 한정된 것이다. 이른바 영재교육의 부분이기 때문이다. 유치원을 재고하는 아직 이 나라에 공적인 영재교육 시설이나 과정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물론 유치원 과정이라 하여 다양하고 엄밀한 검증을 거친 교과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도 않는다. 그럼, 피아노 따위 서구식과의 교습이나, 바둑·수영·태권도 따위 체능과 의 정도가 사적으로 시행되고 있을 뿐이다. 이 정도로 취약한 조기교육 형태에 학부모들의 끝 모를 자식사랑 열의가 가만히 있을 리 없다. 여기에 국제화나 개방화나 하며 떠들고 있는 이 나라의 형편 역시 이들을 가만히 놓아두지 않는다.

이들을 가만히 놓아두지 않는 주제 가운데 이른바 외국어 조기교육론과 그 주장론자들이 있다. 앞의 믿음의 집단에 저지르는 잘못을 이 주장자 단체에 적용해 볼 때 우선 믿음대상의 정통성에 문제가 있다. 우리말이 절대 한자나 한자 조기교육에 의해서 나아질 가능성도, 또 한자 조기교육에 의해 동양문화권에서 특색하는 데나 나오는 데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한가지 이유는 우리가 쓰고 있는 한자는 일본이나 중국에서 현재 쓰고 있는 간체체 한자와는 다른 까닭이다. 아무리 가르쳐도 우리말에 많은 한자어휘의 어원을 익히는 정도 이상

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 현재의 언어생활 형태를 오히려 어지럽히는 부정적인 역할과만 양상할 뿐이다. 그들의 믿음 전파방식 역시 상계를 넘어선 지 오래다. 그들은 한문소원, 국한혼용법 제정 추진, 각종 봉건적 탄원, 언론을 동원한 바람 일으키기 등 온갖 수법으로 국민을 물론, 정책 입안자, 심지어 대통령까지 선동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실 조기교육은 우리나라가 다른 서양 나라에 못지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물론 그것이 공적인 것은 아니었으나 문자·윤리교육의 측면에서 조선시대 때 살 만 한 집안에서는 독선생을 들여 아이들을 가르쳤고, 서당에서도 발귀를 알아들을만 하면 아이를 보내어 가르친 역사가 있다. 모든 것이 서양화되어 가는 시대에 그것이 잘못된 것인 듯만 보이는 우리의 과거를 들여보아 취할 것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은 오히려 칭찬할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 그 가르치는 내용이다. 사실 한자 조기교육을 주장하는 이들은 모든 것이 한문으로 통하던 시대의 교육 내용을 이 시대에 적용하려는 무모함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앞의 믿음의 집단에 저지르는 잘못을 이 주장자 단체에 적용해 볼 때 우선 믿음대상의 정통성에 문제가 있다. 우리말이 절대 한자나 한자 조기교육에 의해서 나아질 가능성도, 또 한자 조기교육에 의해 동양문화권에서 특색하는 데나 나오는 데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한가지 이유는 우리가 쓰고 있는 한자는 일본이나 중국에서 현재 쓰고 있는 간체체 한자와는 다른 까닭이다. 아무리 가르쳐도 우리말에 많은 한자어휘의 어원을 익히는 정도 이상

못한 일부 주·월간지의 가르쓰기·조판, 마침내 국한혼용의 혼용에다 일본식 세로짜기 방식을 속도속 고수하던 일간지들의 부분적 가로편집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혼민정음이 창제된 지 5백 6십여년, 언문일체 운동이 일어난지 1백년의 세월, 해방된 지 40년을 넘겨서야 만 나게 된 일이다.

그동안 우리말로 한자의 폐습에서 벗어나는 데 따르는 슬한 고통과 아울러 이른바 제1외국어(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따위 제2외국어교육의 영향 등으로 상당히 변했다. 거기에는 그쪽 나라 말이 들어와 쓰이는 것 말고도 이왕의 한자말조차 그 본래 뜻을 잃거나 꽤 변하여 쓰이고 있으며, 심지어는 그 말들에 붙여 쓰는 접미사나 품사 전승어미조차 달라져 가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다. 또한 특히 외국의 전공자들의 시제 해부하듯 한 영어 문장공부의 영향과, 은나리에 깔린 서문 번역문의 영향으로 우리말이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것이다.

지금 지적하는 국어학자들이 할 일은 이런 현상에 대한 반성이다. 그 반성은 아무리 하여도 병들어 있는 우리말을 쉽게 고치기 어려운 지경인데, 이제와 어린 아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서서나 그야말로 자식 팔아 먹고 삼아야 할 만큼 굶고 있어선지, 아니면 이제 먹고 살 만하니가 잔소리나 좀 해보자는 것인지 그 대답이 궁금하다.

말이란, 더구나 제 나라말이란 어미젖을 먹을 때부터 익히고 터득하게 되어 있다. 나이 들면서 이를 차차 엄밀정제하고 축복하게 익히고 구사하게 되는 것이다. 말의 개념 즉 일상의 사물의 개념을 말로 명확히 분별할 수 있는 중학생 정도가 되어야 외국어 교육의 효과, 즉 그 학습 성취의 능률이 오른다는 학설이 나와 있는데, 아마도 이 정도는 상식으로 보인다.

아무튼 지금은 반성과 상식으로 허튼 믿음의 우상을 깨뜨리고 애써 가꾼 이 나라의 제정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갈 때에 이 이미 버린 우상을 다시 믿고 쫓을 때가 아니라라는 것은 분명하다.

최근 한자사용확대와 한자조기교육들이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글 문화단체 모두모임(회장=인오상·초대 교육부 장관)은 75주년 3·1절을 기념해 "지금이야 어느 때나 한자야"라는 주제로 21세기 말글 정책 강연회를 지난 26일 한국학술진흥재단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에서는 한글학회(이사장=허웅), 세종대왕 기념사업회(회장=박종국), 외순회(회장=김석득) 등 70여개 한글관련 단체들이 최근 조선일보등 일부 언론사들이 여론조성을 펴고 있는 것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문재인 한글 문화단체 모두모임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강연회에서 허웅 한글학회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쉽고 쓰기 쉽고 조리는 글자인 반면 한자는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어렵고 쓰기 힘들며 조리가 없는 글자"라고 주장하고 "이러한 이유로 현재 중국에서조차 글자꼴을 바꾸고 있는 실정이고 역사의 흐름으로도 어려운 글자에서 쉬운 글자로 변화하는 것이 필연인데 불구하고 최근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려고 하는 세력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허 이사장은 한자조기교육에 대해 "이러한 주장은 어린이들에게 한자라는 글자를 섞어 옛날의 서당식교육으로 되돌리려는 계급적이든 어린이들을 학대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첫번째 강연자로 나선 이진우 변호사는 "남의 말을 배우는것도 좋은 일이지만 우리말부터 바로 써야한다"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 교과서와 일반교과서에서 나타나는 오류는 대략 6:1정도이며 정부의 공문서나 계통표어에서도 조어법에서 있어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변호사는 현재 우리말의 현실은 극도의 혼돈상태에 놓여있다고 주장하고 외국어의 확대사용이나 조기교육은 우리말의 지평 수준보다 6배이상 정확하게 쓰여질때만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번째 강연자로 나선 김동길 국민당대 표고위원은 현재 한자사용확대나 한자 조기교육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별로 말도 안되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하고 21세기 통일된 이후에는 우리말이 세계를

학술현장 21세기 말글 정책 강연회

(한글 문화단체 모두모임 주최·26일 한국학술진흥재단 대강당)



최고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자를 사용하면 능력이 좋아진다는 주장에 대해 "한자를 없애면 당장 불행해지니, 무식하게 될 것이라는 따위의 한심한 걱정은 부질없는 것"이라 반박했다.

세번째 강연자로 나선 백기남 통일문제 연구소장은 '내가 겪은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이어갔다.

백 소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때 자신의 이름을 영어 약자로 불러오는 기자이와 TV·스포츠 중계방송에서의 외래어 사용, 남산 1호터널 공사장에서의 이야기 등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외래어의 남용사태와 올바른 우리말의 사용을 강조했다.

특히 백 소장은 현재 사용되는 외래어 중 '터널'은 '맛뚜레'로 '다이빙'은 '슈왓'로 '파도'는 '물개' 등으로 바꿔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말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김경삼 장관을 하루 빨리 '우리말 피침기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 강연자인 인오상 한글 문화단체 모두모임 회장은 한자를 섞어 쓰므로 해서 정보 전달의 속도를 마냥 늦추고 한자를 배우는데 시간과 노력을 낭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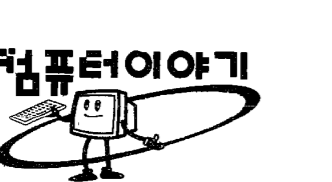
또한 안 회장은 유럽의 예를 들며 두 나라 말과 글을 섞어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이와함께 한자문화권이란 말은 빛좋은 개살구처럼 지나고 버려지고 북한에서처럼 한자를 외국어의 하나로만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1세기 정보와 사회에서 우리의 전통을 지켜나기면서,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한글 전용화를 실현하는 길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강연회에 모인 3백여명은 결의문을 통해 "한자 부근운동은 민족사상 대한 도전으로 단정하고 이러한 움직임은 매우 위험한 시련을 안고 있다"고 주장하고 외국어의 확대사용이나 조기교육은 우리말의 지평 수준보다 6배이상 정확하게 쓰여질때만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번째 강연자로 나선 김동길 국민당대 표고위원은 현재 한자사용확대나 한자 조기교육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별로 말도 안되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하고 21세기 통일된 이후에는 우리말이 세계를



컴퓨터이야기

3년 전에 컴퓨터를 구입한 철이는 얼마 전 자신의 흑백모니터를 SVGA 컬러모니터로 교체하였다. 신이 난 철이는 이것저것 여러 프로그램들을 실행시켜 보았지만 모니터 화면상엔 울긋불긋이 아닌 여러가지 명암만이 나타났다. '모니터가 신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아닐까? 아니면 컴퓨터가 흑백모니터를 컬러로 잘못 알고 준 건지도 몰라' 사정을 말하려 간 철이에 게 물어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차, 우리도 카드를 바꾸지 않았군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처럼 흑백 모니터를 컬러로 바꾼다고 해서 화면에 컬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컴퓨터에서 컬러를 보고 싶다면 모니터도 컬러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하겠지만, 이 컬러모니터에 컬러

비디오 카드 컬러 화면 나타내는 역할 수행 CGA서 XGA까지 거듭 발전

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비디오 카드(Video Card)'라는 것이 필요하다.

비디오 카드-또는 그래픽 카드(Graphic Card)는 화면에 문자와 그림들을 표시하여 주기 위한 인터페이스(Interface) 카드의 일종으로 컴퓨터가 인지하고 있는 2진수 체계를 사람이 알아 볼 수 있도록 문자나 도형 등으로 변화시켜 RGB(Red, Green, Blue) 신호로 적당히 분리하여 모니터로 보낸다. 이 RGB세 가지가 모여서 색상을 표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컬러 화면을 나타내게 해 주는 중추적인 역할을 이 비디오카드가 수행하는 것이다.

개인용 컴퓨터가 개발된 초기에 흑백 모니터에 많이 사용되던 MDA카드와 HGC카드부터 시작하여 초고해상도의 컬러 화면을 나타내게 해주는 XGA까지 비디오 카드는 많은 변천 과정을 거쳐왔다.

80x25의 텍스트 모드(Text Mode: 글자나 문자를 표시할 수 있는 화면상태)만 지원했지만 가격이 싸고 업무용으로는 그 기능이 충분해서 사랑을 받았던 MDA(Monochrome Display Adapter), 텍스트모드와 그래픽 모드(Graphic Mode: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화면 상태)를 모두 지원했지만 낮은 해상도와 저주 감행거리는 단점이 있었던 CGA Color Graphics Adapter), 고대 회합 신호의 천하장사인 헤라클레스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허클레스(Hercules Graphics Card)'는 MDA에서 사용한 모니터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720x348의 높은 해상도의 그래픽 모드까지

지원되고 한글을 표현하기에 적합해 우리나라에서 폭발적 인기를 얻었다.

MDA, CGA, HGC의 '입후'의 시대는 16색을 지원하는 EGA(Enhanced Graphics Adapter)와 기본적으로 640x480의 해상도에 16색을, 320x200 해상도에서는 256색을 나타낼 수 있는 VGA(Video Graphic Array)카드의 등장으로 자연 빛의 시대로 전환되었다.

또한 그래픽이나 CAD등의 작업환경에서 섬세한 작업을 할 수 있고 화면의 처리 속도도 VGA보다 향상된 SVGA(Super VGA)의 등장과 1024x768의 해상도에서 256색을, 640x480 해상도에서는 무려 6만5천5백36색을 표현할 수 있는 XGA(Extended Graphics Adapter)의 등장으로 자연의 모든 색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많은 그래픽 카드의 대부분이 VGA카드와 SVGA카드이다.

모니터가 표현할 수 있는 해상도와 색의 수에 알맞은 비디오 카드를 선택해 보자. 맛있는 그래픽 화면에서 컴퓨터와 친해지기 바란다. (사회부)

신학기 교재를 완벽히 갖추고 대학인 여러분의 방문을 기다립니다

6. 문예관·외국서적관 시·소설·수필·연극·영화·음악·미술·체육 미국·일본·유럽 수입원서

5. 자연관·컴퓨터·레코드 농업·공업·가정·의학·전기·전자·토목·금속·기계·아시아권 수입교재(ISE) 컴퓨터 하드웨어·소프트웨어·사무자동기기·LP·CD·카세트·타이프·오디오부품

4. 인문관·방송대교재·문구 문학·종교·역사·철학·사회·교육·심리 문구·펜시용품

3. 사회관·학생관 정치·경제·행정·법률·메스컴·세부 중국·교재·아동도서

2. 기독교관 성경·신학·교양 목회·철교·관송가

1. 예매권·잡지 국·내외 정기간행물

지하철 1호선 종각역 바로 위

종로서적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84-9
대표전화: 733-2331(매점)·732-2331(사무실)

●영업시간: 평일 오전 9:00~오후 9:00 일요일·공휴일 오전 11:00~오후 8:00 ●특수인을 위한 서비스: 도서안내(733-3061) / 작가의 대화(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오후 4시) / 통신판매/특수정보 및 요청 주간·월간·계간 발행 무료 배포/특판(디자이너님들)

英·日·中·獨·佛語

고려외국어학원

외국인

YMCA건너편 보원약국코너

739-8000
739-7000
739-6000

BE WINNERS

외국어교육의 센터

청문어학학원

아카데미 TOEFL 유학, 고시, 대학원, 취직등 각종 시험에 대비한 코스	이중세의 문법·단어·숙어의 체계적 학습과 독해력·영역력 배양	성문 종합영어 문법·단어·숙어의 체계적 학습과 독해력·영역력 배양	최종목표 TOEFL 600점 이상
아재목 TOEFL 핵심문법 + 빈출어휘 + 작문·독해의 심화·일체식 강의	백학영 문법·단어·숙어의 체계적 학습과 독해력·영역력 배양	실력기초 문법·단어·숙어의 체계적 학습과 독해력·영역력 배양	승원 TOEFL 600점 이상
홍중대 영어특수 시험·유학을 준비하는 분의 영어 표현중심의 공과 어휘·문법·영작·번역·독해를 상세히 지도·강의	임태연 문법·단어·숙어의 체계적 학습과 독해력·영역력 배양	Man To Man 기본영어 영어에 자신이 없는 수강생을 위한 문법의 기초 배양	승원 TOEFL 600점 이상
영어순해 직독직해, 어법식 체계로 현대식 영어 학습의 정점	임태연 문법·단어·숙어의 체계적 학습과 독해력·영역력 배양	영어회화 코스 과목 I, S.B.S 회화부터 시작하는 문법 위향 기초회화 코스 과목 II, Spectrum 현재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어체 표현 익힘 과목 III, Streamline 영어와 한국어의 표현차이의 이해와 미국식 표현 익힘	권익 TOEFL 600점 이상
TOEFL L.C 유망학이문을 도입한 청취력 강화·특별강좌 개설	Steve Jung 문법·단어·숙어의 체계적 학습과 독해력·영역력 배양	TOEIC L.C 취직·승진시험을 앞둔 직장인·대학생을 위한 코스	권익 TOEFL 600점 이상
AFKN특취 일선된 다양한 Topic을 반복 훈련하므로써 TOEFL, TOEIC 등 각종 시험에 대비한 청취력 배양	황재우 문법·단어·숙어의 체계적 학습과 독해력·영역력 배양	일본어 체계적인 초급반·중급반·TOEIC 종합코스의 회화·문법·작문·청취의 동시강의 등의 전문강좌	권익 TOEFL 600점 이상
SCREEN ENGLISH 쉽고, 재미있고, 성의있는 강의를 100인원 크린에서	Cheyney Lee 문법·단어·숙어의 체계적 학습과 독해력·영역력 배양	일본어 회화 생활일어 속에서 쉽고 재미있는 일본어 회화 학습	권익 TOEFL 600점 이상
VOCA 22000 문법을 통하여 중심개념을 파악하고 접두어, 어간 및 접미어를 통해 조직적인 체계에 의한 영문 해석	최재우 문법·단어·숙어의 체계적 학습과 독해력·영역력 배양	중국어 부정적 중국어 발음, 사정, 문법, 회화, 청취력 등을 강의	권익 TOEFL 600점 이상
TIME·영작 TIME만이 지니는 특유의 표현 양식, 어휘, 각종 시사어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 고급 영문 독해력과 영작력을 배양	최우연 문법·단어·숙어의 체계적 학습과 독해력·영역력 배양	CCF 프랑스어 문법, 독해, 회화, 어휘, 작문 전문코스 최고실력! 최다강좌! 최다강사! 최고시설!	신승원 TOEFL 600점 이상
		독일어 숙련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	양동표 TOEFL 600점 이상

최고의 시설, 최고의 강사진 3월 27일 개강!!
738-5151 위치: 종로서적 뒤



서울캠퍼스 새로배움터, 수능새내기 참신함 돋보여 변화된세대 책임질 기획행사 고민해야

“새내기 여러분, 환영합니다!”라는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로부터 곳곳에 붙은 각 동아리소개대자보가 새로배움터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고 있었다.

학교와 총학생회 공동주최하에 양행에서 243일씩 열린 이번 새터에서는 예년과 조금은 다른 듯한 새로운 분위기가 느껴졌다.

같이 학과교사세대와 수능고사세대로 구분하지 않더라도 이전과는 달랐던 신세대 94학번 새내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고 할까.

새터기간중 진행된 중앙문화행사는 동국문화회, 아리랑의 중앙공연과 현악, 손짓사랑회, 극화, 동국합창단으로 구성된 동아리연합의 공연으로 집약되었다.

특히 분과교과, 중앙자체의 위상을 세우려는 의도로 올해 처음 시도된 동아리연합의 공연은 비합당한 방향이라 볼 수 있으나 소수 동아리의 참여와 더불어 얼마나 기획의도를 살렸는가가 의문이다.

중앙행사에 있어 공연관람 여건, 운영의 미숙은 접어두고라도 우선 중앙공연팀의 노래 ‘94뿌리내리기’는 주제가 잘 활용되고 탄탄한 곡을 보여주었으나 장기수의 삼파루장을 그림으로써 신생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 반면 동연팀은 신

인생에게 너무 다가가려다 자칫 가벼워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산만했다.

공연을 지켜본 한 학우는 “중앙문화행사가 아직도 동아리 홍보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단과대별 프로그램을 보면 단연 ‘새내기 뽀내기 한마당’이 주류를 이룬다. 함께 참여하고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데 충분한 이 순서는 새내기들의 참신한 재치를 엿볼 수 있다. 새터에 참여했던 한 선배는 “요즘 새내기들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참여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한다. 문화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새봄’의 반응이 가장 좋았다고

선배들의 이번 새내기대 대한 생각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활발하고 적극적인이죠. 말그대로 술 잘 마시고 놀기도 잘하고……” “과별로 논하는 걸 보면 수능세대라서인지 논리적이고 의식도 높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또한 신입생들은 자기 표현이 강하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그들의 입맛에 어느정도 따라야 한다.

한편 전통적으로 고집해 오는 프로그래머도 있다. 바로 예술대의 ‘극기훈련’. 힘은 들지만 어느정도 자

기중적인 새내기들의 단결심을 고취시키는데 가장 좋았다.

매년 있어왔던 문제지만 많은 인원수가 가능한 문화공간부재, 운영의 어려움, 단과대시간 부족등의 문제가 여지없이 던져졌다. 이와 더불어 전체 학생이 참가하는 새터 의미가 점차 상실되어간다. 한 학우는 “이제부터 단과대별로 그 특성에 맞는 새터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중앙에서 통계 이상의 어떤 것도 담보하지 못할 때 단과대별 새터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총학생회 한 집행부는 “단과대별로 역량이 충분한 현직에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터는 신입생에게 있어 대학생활의 시작이기에 올바른 대학문화의 정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작은 일이지만 학부위에서 실시한 ‘전통차 무료시음회’는 높은 호응도와 함께 훌륭한 일로 기억된다.

새내기 새로배움터는 단순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차원을 넘어 동국인이라는 주제로 서는 장이다. 변화는 새내기에 맞추는 대중추수주의적 사고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임 질 지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김소영 기자)

새내기 인터뷰

■ 새로배움터에서 만난 김철주(컴공1)군

“이젠 정말 대학생이구나 싶어요”

“물론이면서 대동들이 할 때가 제일 신납니다. 이젠 정말 대학생이구나 싶어요” 새내기 새로배움터에서 만난 김철주(컴공1)군은 풍물패의 공연을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

다. 자신이 속한 조이름을 ‘여강도와 태형사리’고 밝히는 김군은 조별장기자랑때 아카펠라를 준비했다고 실과 귀필해준다. 조구호와 장기자랑을 준비하느라 자유시간이 거의 없는데도 대역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중2때 처음 컴퓨터를 접하고 그 매력에 끌려 컴퓨터를 지원하게 된 김군은 전자 키스트(한국과학기술연구소)에 들어가 연구를 계속하게 되었다.

광주교를 다니던 고3 시절 3시간 이상 잠을 자본 적이 없이 공부했던 게 합격의 요인이라고 생각하며 ‘하먼리’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한다. 덧붙여 고등학교 때의 ‘자율학습’은 말이 자율이지 타율적이었던 것 같아 ‘자율학습’을 해 볼 예정이라고 한다.

새터기간중 선배에게 받은 인상은 대개 잘해주려고 하는 게 느껴졌지만 가끔 지나치게 원리원칙을 따지는 선배도 있어 힘들었다고 얘기한다.

“자신이 신세대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고3때는 고1·2에게 구세대라는 말을 들었었다”고 말하며 “그런 것은 보는 사람입장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냐”며 제법 자신의 생각을 밝힌다.

학교에 처음 왔을 때 명진관앞의 불상이 가장 인상깊었다고 말하는 김철주군은 충고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불교에 대해서 호의적이라며 학교에 대해서도 만족해 한다.

어릴때부터 광주에 살았던 김군은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억도 어렵듯이 남아있다. 길거리에서 아빠투리에 앉아 트럭에 탄 많은 사람들을 보며 멋모르고 박수치던 게 생각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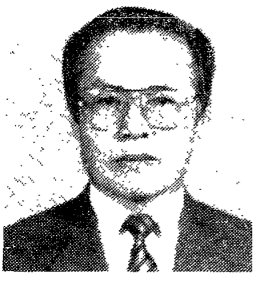
이제는 서울말이 귀에 익숙하지 않다는 김군은 학교근처에 하숙할 계획이라며 빨리 새친구가 생기길 기대하고 있다.

입학하기도 전에 받은 과제 때문에 황당했다는 김군은 요즘 ‘전자문쓰기’와 ‘독후감’ 책을 읽느라 바쁘다.

새내기 김철주군이 계획했던 꿈 많은 대학생들이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김소영 기자)

달 하나 천 경에 삶의 지혜



“시간은 금이다란 격언은 누구나 자주 듣는 말이고, 흔한 글들에서 눈에 잘 띄는 명구이다.

이 세상에 많은 선현들은 이 명구의 참 뜻을 절감하고 일생을 갖지게 살다간 사람들이 많음에 비해, 우둔한 필자는 자천명(知天命·오십)의 나이에 이르러서야(그나마도 다행하게) 이 명구의 참 뜻을 감지하게 된 것이다.

이 참 뜻을 내 마음 속에 자리잡게 해 준 사람들은 다름 아닌 불가의 스님들이다. 불가의 하루 생활.

새벽 3시 기상. 법회예불, 경내 두루 청소, 6시 아침 공양(식사) 그리고는 그날 그자가 하는 일인 ‘은 정상을 다하여’ 열심히 한다.

오후 9시 취침.

이렇게 하루 일을 끝내고 잠자리에 들고는 또 새벽을 맞는다. ‘삼백에순날’, 이 고베는 결코 늦추지 않는다. 아나, ‘삼만 육천날’을 같은 리듬으로 정진한다.

스님들의 얼굴은 언제봐도 늘 밝고, 늘 건강이 넘치는 얼굴이다. 언제나 환희에 넘친다. 이순(具順·육십)의 나이인데도, 늘 노인으로 보인다.

제이무리 우둔한 필자이지만 강한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하루의 시간을 정성을 다하여 사는 삶의 자세, 여기에 삶은 지혜가 담겨있음을 뒤늦게나마 알아차리게 된 것이다.

“하루를 정성을 다하여 살라”

이 말은 내가 혼례식주례를 서는 경우, 주례사의 기둥이 되는 말이다.

“새벽을 맞거든 새날을 맞음에 감사하고, 그날의 일을 정성을 다하여 열심히 하고, 저녁에는 조용히 하루를 되돌아보고 잠자리에 든다. 그리고 또 새날을 맞는다! 결코 이 리듬이 흐트러지지 않게 한다.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노련한 만큼 거두려고 한다. 삶의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고 여기에 행복이 있다”는... 주례사의 대강의 줄거리이다.

불가의 생활에서 필자는 다음 몇 가지에 강한 공감을 받는다.

①시간의 귀중함을 깊이 느끼고 실천하는 생활.

②밥풀 하나, 종이 한 쪽도 헛되이 하지 않는 겸양정신.

③생명의 외경. 모든 생명을 존중히 하는 마음.

④주어진 일을 정성을 다하여 열심히 하는 생활의 자세.

여기에 삶의 지혜가 있고, 건강이 있고, 인간이 바라는 참된 행복이 있음을 알아차리게 된 것이다.

신용대

문화대 일어일본학과 교수

경주캠퍼스 오세철교수 초청강연회 열려

“진보적 삶에 대한 필요성 느꼈어요”

“새내기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 2월24일 겨우내 움츠렸던 온방골은 예비대학에 참석하러 온 신입생들의 밝은 모습들로 새봄을 맞은 듯했다.

이번 예비대학은 주요주최를 총학생회와 인문대학학생회로 나눠 치렀으며 새내기들을 위한 문화행사 면에서 기획과 행사진행이 다른 모습을 보이며 다양한 구상이 펼쳐진다는 지적이다.

예비대학에서의 문화행사는 대학사회를 처음 호흡하는 신입생에게 대학문화의 단면을 보는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 일정중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인문대는 이번 예비대학에서 오세철교수(연세대·민중정치연대대표) 초청강연회를 준비했다. 25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강연은 ‘대학인의 진보적 삶’이라는 주제로 약 1시간동안 진행됐다. 적극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지침을 강연하는 장에는 사투 진지했으며 전담 일정이 늦은 학교는 청취에 소홀한 신입생도 보였다. 강연후 한문학과와 한

신입생은 “생소한 강은 있지만 긍정적이지 못했던 대학생의 진보적 삶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어요”라고 말한다. 마지막막에 열린 문화대동제는 민중문화운동연합(의장=배문석·총3)산하 노래패, 탈춤, 해방꿈짓의 공연이 이어졌다. 종래의 동아리소속식이 아닌 신입생들에게 민중의 아픔을 담은 노래말이나 국제화시대에 우리것을 고수하는 본보기인 탈춤, 강렬한 표현력이 돋보인 해방꿈짓들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주제를 형성해 신입생들에게 교훈적으로 다가갔다.

이날 문화행사를 끝으로 주요일정을 치른 인문대학학생회장 오정기(철4)군은 “단순히 즐거움의 자리 가 아닌 가능한 대학사회의 많은 부분을 접해보도록 주관점을 두었습시다”라고 말했다.

한편, 25일 해운자연생원에서 자연대, 상경대, 법경대, 의대 등이 일정을 시작한 총학생회의 이력승(의계4)총학생회장은 “프로그램계획을 최대한 과감히 돌리고 선후배가 어울릴 수 있도록 적극 후원하

는 학생회가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라고 예비대학의 의의를 설명했다. 각 단과대별로 불휘, 새벽을 여는 사람들등의 동아리가 공연했으며 총학생회가 준비한 주요문화행사는 ‘동국인의 밤’이었다. 불휘의 신명나는 놀이판을 시작으로 비라벨, 스타메이킹 그룹사운드와 공연이 이어지자 대학생활을 미리 배운다는 행사의 마지막막은 축제의 분위기를 뽐냈다. 행사후, 전산통계학과와 한 신입생은 “너무 즐거웠어요. 이런게 정말 대학이구나하고 느꼈어요”라며 밝게 삼키며 얼굴로 말한다.

27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퇴소하는 새내기들은 앞으로의 대학생활에 대해 한껏 부푼 모습들이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진행될 경주캠퍼스 예비대학, 대학을 미리 배우기 위해 참가한 새내기들에게 이번 예비대학은 다양한 기회와 시도 이면 대학생활을 담보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택실 기자)

■ 새내기 송여정(행정1)·임효경(일문1)양을 만나 여러사람들과 만나 경험 쌓을터

“행사에요? 동국인의 밤이 제일 좋았어요. 마치 콘서트장에 온 기분이었어요”

행정학과 신입생 송여정양은 총학생회가 후원하고 상경대, 법경대, 자연대가 참가한 올해 예비대학 프로그램중 가장 좋았던 것을 ‘정열’을 꼽았다. 그룹사운드 ‘비라벨’의 공연으로 꾸며진 ‘동국인의 밤’을 꼽는다.

아직 고등학생처럼 책 벗지 못한 송양의 장래 희망은 어떻게 보면 소박하기 그지없는 ‘공무원’. 대학에 들어가 여러사람들과 만나 경험을 많이 쌓고 싶으며 대학의 자유와 낭만을 한껏 느끼게 해준 예비대학에 참가한것을 잘했다고 생각한다.

한편 총학생회의 별도도 예비대학을 치른 인문대 예비대학에 참석한 일요일문화학과 새내기 임효경양은 “많은 기대를 하지 않은 예비대학에서 많은것을 배웠으며 예비대학에서 느낀점을 이야기한다.

“선배들과 대학에 대해 그리고 적극적인 삶과 대학생활에 대한 이

야기를 한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 대학의 여러모습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예년과 달리 ‘수능고사세대’의 맞이하며 다양한 기획과 새로운 시도가 곳곳에서 눈에 띈 이번 예비대학은 그러나 대학에 대한 환상을 깨고 보다 진지한 대학생활을 보내기 위한 새내기들에게 과연 무엇을 보여 주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부분에서 많은 생각을 불러 일으키게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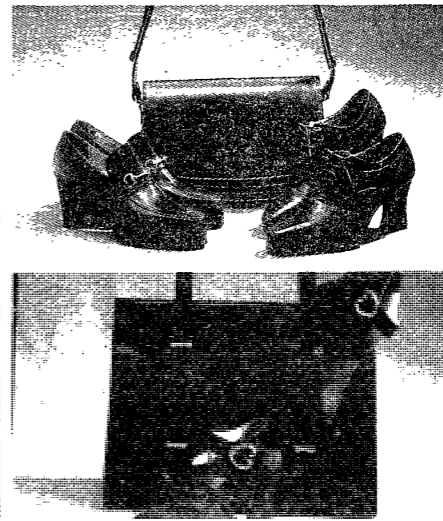
“대학의 자유와 자율과 함께 스스로에 대한 책임도 중요하다는 선배들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이제 막 대학이라는 작은 사회로 들어오는 두 새내기의 맑은 눈망울은 무엇인든 다 담을 수 있다는 자신감과 설렘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학생회라든가 과 소모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고 싶어요. 미팅도 많이 하고 싶어요”

(이재환 기자)

“사반나·마이네임·꾸띠「Best Dresser」를 찾습니다.”



- ① S-LINE 사반나
- ② 꾸띠(CUTIE) 신세대 감각파의 트렌디 캐주얼
- ③ 마이네임 MY-NAME 모던 클래식의 뉴모드

“워너스·LG·국민·BC·비자카드회원 - 6개월무이자 할부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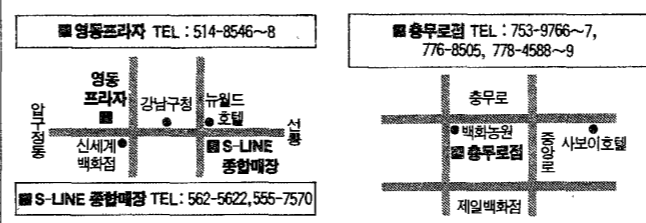
Best Dresser 선발 요강

- Best Dresser 응모자격
- 신세대 패션마인드를 지닌 여대생
- 선발 인원 : 000명
- 응모요령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당사 소정양식) 명함(5×7) 및 스냅사진 각 1매
- 제출기한 : '94. 3. 15일한
- 서류 배부 및 접수처 : 당사 총무부매장, 영동프라자, S-LINE 종합매장
- 베스트드레서 발표 : 개별 통지 및 각 대학 신문 게재(3월말 또는 4월초)

Best Dresser 특징

- 계절별 의류 1벌 무상증정(종업시까지)
- 재학중 당사 모니터링으로 활동소 조정의 장학금 지급
- 패션 정보 제공, 패션쇼 및 각종 문화행사 초대
- 졸업후 당사제품 구입시 직원가득에 준하는 우대 혜택
- 기타 다양한 특전

매장 약도



(주)신보인러내셔널 · 서울시 중구로 외동동 27-2

- 전국 매장 및 전화번호
- 본사 : 742-3431~3
- 영동프라자 : 514-8546~8
- 종로점 : 765-4678, 745-7210
- 송무로점 : 753-9766~7, 776-8505
- 역삼동 S-LINE 매점 : 562-5622
- 성남점 : 721-0195~6
- 부산 창신동점 : 241-2335, 246-7822
- 대구 동성로점 : 424-7400, 424-5333
- 광주 충장로점 : 222-2933, 225-2933
- 대전 은행동점 : 255-0161~2
- 울산 성남동점 : 43-8500, 46-0444
- 청주점 : 55-9969, 56-9969
- 신안 오룡동점 : 551-3090, 551-9187~8
- 순천 중앙동점 : 52-4428, 52-4834~5
- USA로스앤젤레스점 : (213) 465-4353
- 시카고점 : (312) 588-3778

지 사 불의앞에 의연한 동국인 되길

친애하는 신입생 여러분!
어려운 입시관문을 뚫고 영예롭게 우리 동국대학교에 입학한 것을 중심으로 환영하고 격려하는 바입니다.
우리 학교는 불교학, 동양사상, 한국학 일반에서뿐 아니라 컴퓨터 공학 생명공학등 최첨단 자연과학에 이르기까지 우수한 교원진과 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이미 작공한 오천여평 규모의 동국학술문화관 건립, 제3 캠퍼스 부지확보, 수도권 종합병원 건립등 다채로운 사업계획들을 점차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이 우리 동국대학교에 재학하는 기간중에 이 눈부신 동국발전의 청사진들은 하나하나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대학은 본질적으로 학문연구의 전당입니다.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고 진리를 연찬하는 지성의 산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대학생활은 이 학문연구에 그 일차적 목표를 두어

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대학은 국가적 요구에 부응하는 인재의 산실이라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바이호로 국제화의 시대를 맞으면서 우리는 보다 미래지향적 인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 동국인은 불의앞에 의연해야 합니다.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는 나약한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파사현정을 이루려는 보살의 원력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젊음은 언제나 푸르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떨어지는 낙엽처럼 슬러져야 하는 것이 우리를 중생의 삶입니다.
그러나 무상하기 때문에 허무한 것은 아닙니다.
흘러가버릴 젊음이기에, 그 기간은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젊음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다 생산적이고 값진 에너지로 전환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당부 드리고자 하는 점은 여러분들의 오늘이 있게 되기까지 헌신적인 희망을 아끼지 않으신 학부모님들의 노고를 잊지 말아달라는 부탁입니다.
오늘의 영광이 있게 되기까지 학부모님들이 흘렸던 눈물과 땀에 대해, 보답은 바로 '성실한 인격으로 성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동국대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은 여러분들이 원한 추창생활을 위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재단은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교수는 학술진흥과 강의의 위해, 교직원들은 원만한 학사행정을 위해, 그리고 동문은 빛나는 동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크신 자비광명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중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 오 녹 원 합장

입학식사 큰자아를 실현할수 있는 지성인

친애하는 신입생 여러분!
본인은 먼저, 여러분이 써주려 노력과 남다른 어려움을 겪고, 우리 대학사상 유례없는 치열한 입시경쟁에서 승리하여 오늘, 새로운 동국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여러분에게 오늘의 영광이 있기까지 노심초사 온갖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을 뒷받침 해주신 학부모님 여러분에게도 경의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뜻깊고 경사스러운 입학식사를 빛내주신 오복원 이사장님을 비롯한 원로 대덕스님 재단 이사님들, 그리고 황명수 총동창회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이 입학한 우리 동국대학교는 자비와 지혜의 바탕위에 자아완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불교정신을 건학이념으로 개교한 이래, 88년의 장구한 역사와 빛나는 전통속에서 수많은 인재를 양성, 배출해

온 민족의 선봉 사학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러한 명문대학에 입학한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진리와 자유의 상아탑에서 학문과 인격의 연마는 물론, 동국의 새로운 주역으로서 모교의 전통을 계승하고 새 역사를 창조하여 동국의 이상과 여러분의 미래를 영예롭게 개척해 나가야 할 책무를 지고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은 학문과 진리의 탐구를 가장 중요시하는 곳이며, 인격의 도야와 사회봉사의 기능이 강조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신입생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대학인의 책무와 대학의 본령을 망각하고 향락과 무절제의 여윌속에서 대학생활을 낭비하는 학생이 있다면 이는 자기자신이나 대학을 위해서도 다행이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입시공부나 전전공금하던 소에서 벗어나, 보다 차원 높은 세계에서 자유롭게 사고하고 책임감있게 행동하며 큰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젊은 지성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친애하는 신입생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로운 문명시대를 맞아 개혁과 개방이라는 역사적 전기에 직면해 있으면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만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변화와 격동의 시대일수록, 지난 역사의 명암과 흐름을 사고깊게 헤아리면서, 지성과 양심을 바탕으로 새로운 세대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역량을 차근차근 길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빛나는 전통을 세우고 동국을 거쳐간 수많은 선배들에게 추호도 부끄럼이 없는 후배가 되도록 거듭나서 정진과 창조적 기상을 실현해 주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합격과 입학에 축하하면서 여러분의 앞날에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장 민 병 천 합장

화전무대

절망세(?)
O...지난 22일 한우리의 '새'들이 국가보안법 '몰카'에 묶였다는 소식으로 5공을 연상시키는 일이 있었는데.
다름아닌 노태환 '회망세'의 대표, 기획부장등을 노태환사 사건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강제구속시킨 것이라.
민예총측에서 알아본바로는 '회망세'가 3월부터 공연 예정인 '아침은 빛나라'의 창작과정에서 노태환사 관련인물의 시집을 참조한것을 조직사건으로 처리한것.
이에 '회망세' 공연을 기다리던 한화우 '5공시 관객'으로 회망세가 절망세가 되겠다"며 분노.

경제적 졸업장
O...올해 졸업장을 받는 은행권 학생들은 졸업준비위원회에 둘러 졸업장 보관을 맡겨야 하는 새로운 수고를 해야 했는데.

앨범, 졸업장과 함께 챙겨야 할 졸업장보관통이 졸준위측의 사고(?)로 지급이 안되자 부랴부랴 환불에 나선것. 졸준위측이 밝힌 그 사고의 전위는 '청탁업체의 사고'였다고.
1만 학위의 졸업을 준비하는 자치기구로서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지 않느냐는 한 졸업생은 "그래도 절망이 없는 일한 졸업장을 받는셈"이라며 애써 자위하는 모습.

그래도 2번은...
O...은행권 도서관 2열람실의 시계가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질 않는다는데.
벌써 몇달전부터 겨울잠에 빠져 버리는 소리에도 깨어나질 않아 학우들은 어리둥절. 그러나 지난해 11월 새로생긴 5열람실에는 잠자는 시계조차 찾아볼 수 없어 공부하는 학우들이 재각기 배부시계를 이용한다고.
이에 한 학우 쓸쓸하게 "배부시계보다는 하루에 두번씩 정확하게 시간을 알려 주시 감사하게 해주세요"라며 한마디.

졸업의 의미
O...학교를 떠나는 마지막 자리조차 먹고 마시는 분위기에어서.
정작 학위수여식이 거행되는 문무관은 주인은 없고 객들만 자리를 채워 졸업식장은 썰렁(?)하기만 했다고.
떠나는 이들이나 떠나보내는 이들 모두 16년간의 피교육자 위치를 마감하는 '졸업'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하지 않을까.

등록금 협상 동국중흥한마당·동발위 다시제기 총학-철저한 사전준비·학교-성의있는 태도로 임해야

94학년도 등록금 협상에서 동국중흥한마당 개최와 동국발전위원회가 다시한번 제기됐다.
매년 등록금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동국발전위원회와 지난해 처음으로 제기되었던 동국중흥한마당 등은 제기 당시에도 그려왔듯이 학교발전에 대한 희망으로 보였으나 한번도 제대로 실현하

지는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지난해 동국중흥한마당이 무리한 일정 학교당국의 성의없는 태도와 준비부족등으로 무산되면서 학내시태가 번져 나갔던 것을 생각해 보면 올해 역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수준은 이의 성사여부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도 그럴것이 제26대 총학생회

(회장=박현식·전기)에서 밝히고 있는 동국중흥한마당의 시기가 5월 중순이다. 이는 지난해 제기되었던 시기와 비슷한 시기이다.
물론 이 시기가 개교기념일이 있는 의미있는 시기이기는 하지만 시간적 촉박함으로 인해 행사를 치루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따른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는 타대학의 사례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현재 몇몇 대학에서 실시했던 000한마당의 대부분 개최시기는 10월경이었고 특히 성공적 행사였다는 평가였던 범중앙 한마당 역시 행사의 시기는 10월 중순이었으며 제기된 시기도 등록금 협상자리였다.
지난해 제기 됐던 동국중흥한마당에서는 행사의 시기를 5월로 정하고 행사계획서등이 제출되긴 했지만 학교당국의 무성의한 태도로 인해 무산되고 말았던 사실을 기억해야 할것이다.

경주총학 물가조절위원회를 진단한다

학생들의 적극적 행사 참여가 관건

올해도 방을 구하기 위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매년 물가인상에 따른 방값인상과 수요에 못미치는 공급으로 학생들이 받는 불이익은 크다.
이에 제11대 총학생회(회장=이영숙·회계)는 물가조절위원회(위원장=박영규·철)를 구성하고 지난 2월7일부터 오는 3월3일까지 교내 북대방을 운영, 신입생과 재학생들에게 하숙 및 자취방을 알선해주고 있다.
물가조절위원회는 북대방 운영에 앞서 학교주변 물가조사를 실시하고 일차적으로 신입생들에게 민박 소개를 해주었다.
또한 지난 1월초부터 학교주변 지역에 교내 북대방 운영 홍보와 생활환경조사까지 실시해 신입생

들에게 깨끗한 방을 소개해 주고 있다.
지난해 말 물가조절위원회가 조사한 물가조사회를 참고로 북대방운영자료의 평균 방값 및 식비를 살펴보면 잠만 자는 방의 경우 80~1백만원, 자취는 1백~1백50만원, 하숙은 80~1백만원정도이며 식비는 16만원이 가장 많았다.
한편 총학생회 사회부장(최준혁·수교)은 "학교측은 주민들과 방값협상과정에서 미천이 벗어날 것을 우려해 총학생회측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학교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문의를 통해 총3백여명정도 소개가 이루어졌으나 재

학생들의 문의율은 10%도 못미치는 상황이다.
재학생의 경우, 방중에 '홍보가 이루어지지 못한 탓도 있지만 직접 찾아다니며 방값협의를 보는 것이 더 확실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물가조사사업이 단지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일회성 기획사업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학교측의 협조와 재학생들의 행사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총학생회측은 방값 안정화를 위해서 2학기에도 교내 북대방을 운영할 예정이며 2학기 물가 및 방값조사는 7~8월경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전화 기자)

명확히 드러난다. 현재 몇몇 대학에서 실시했던 000한마당의 대부분 개최시기는 10월경이었고 특히 성공적 행사였다는 평가였던 범중앙 한마당 역시 행사의 시기는 10월 중순이었으며 제기된 시기도 등록금 협상자리였다.
지난해 제기 됐던 동국중흥한마당에서는 행사의 시기를 5월로 정하고 행사계획서등이 제출되긴 했지만 학교당국의 무성의한 태도로 인해 무산되고 말았던 사실을 기억해야 할것이다.
현재 제26대 총학생회는 동국중흥한마당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은듯 싶다.
동국중흥한마당의 구체적 실천계획에 대해 학원지주화투쟁위원장(원용일·사)은 "5월중순에 있을 동국중흥한마당에서 동국발전위원회의 발족식을 진행시키는 것만이는 의의된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동국중흥한마당은 학교의 전 구성원의 합의아래 학교발전사업의 획기적인 추진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다.
행사를 치루기 위해 6개월에 걸쳐 10여차례의 주체들간의 협의, 각 과단위까지 준비위를 구성했던 중앙대의 사례를 볼 때 올해 제26대총학생회가 합의한 동국중흥한마당의 성공적 개최 여부는 그리 밝지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이석종 기자)

계장급이하 인사이동

학교당국은 지난달 17일에 이어 24일 계장급이하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이번엔 실시된 인사이동은 다음과 같다.
(서울캠퍼스)
△교무처 교무계장=이천중 △교무처 학적계장=손재영 △학생처 장학계장=김희배 △총무처 총무계장 서리=김종배 △관리처관계장=박성재 △관리처 후생복지계장=김진영 △경영대학원 교학계장=한문우 △교육대학원 교학계장=조인성 △정보산업대학원 교학계장=황주환 △법과대학 교학계장서리=황의문 △사회과학대학 교학계장서리=김종호 △경상대학 교학계장 서리=유재동 △사범대학 교학계장=김계현 △예술대학 교학계장서리=김재선 △중앙도서관 문헌정보계장서리=이동규 △여경원 업무계장서리=김두서 △동국한방인턴병원 원무계장 의료원 파견=구대희 △동국한방인턴병원 경리계장 의료원 파견=김영인 △북지사사공동관리위원회 사무국파견 사무국장=이건배 △기획조정실 기획과=강형석 △기획조정실 기획과=김진환 △기획조정실 국제과=김영수 △교무처 교무과=박근서 △교무처 학적과=송민수 △교무처 교무과=박인환 △관리처 관과 과환실=김영화 △이과대학 교학과=안미숙 △농과대학 교학과=조정배 △북지사사공동관리위원회 사무국파견=김경희 (이상 2월24일자)
(경주캠퍼스)
△교무처 교무계장=채찬호 △교무처 수업계장=이철우 △교무처 이부교학계장 서리=박용하 △교무처 학적계장=이진희 △학생처 장

학계장=김상운 △학생처 취업계장=신익중 △사무처 관계계장서리=김영수 △사무처 후생복지계장=정성호 △지역개발대학원 교학계장=임삼록 △불교문화대학 교학계장서리=박승필 △인문과학대학 교학계장=송익균 △자연과학대학 교학계장 서리=문재욱 △상경대학 교학계장서리=최정훈 △한국의과대학 교학계장=주재권 △기속사 계장=박두관 △교무처 교무과=김종진 △학생처 학생과=유인수 △사무처 총무과=김영부 △도서관 사서과=신우호 △도서관 열람과=성재용 △교무처 학적과=서종욱 △학생처 장학과=권기숙 △사무처 총무과 우체국 파견=최숙희 △사무처 경리과=이병희 △도서관 열람과=박옥선 (이상 2월24일자)
한편 기구변경에 따른 인사로는 다음과 같다.
(경주캠퍼스)
△금강생활관 계장=박두관 △금강생활관=김경호 (이상 3월1일자)
학복위, 신입생행영특강
경주캠퍼스 제9대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서경복·법)는 '신입생행영특강'을 오는 14일부터 약 8주간에 걸쳐 실시한다.
이번 특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카데미포럼 전국대학교 동시특강 132강좌=원효관(A301) △영어특강특강=원효관(A207) △컴퓨터특강=도서관 전산실습실으로 강의시간을 오전 오후로 나눠 수업의 시간을 활용하도록 했다.
전수는 지난 2월 24일부터 학복위사무실에서 받고 있으며 접수 선착순 마감 예정이다.

기쁜날 즐거운날엔 언제나 신라명과



맛있는 빵·신라명과

신라명과는 1979년 Hotel Shilla의 제과 사업부로 시작하여 최고급 제품 생산을 기업 모토로 운영해온 제과·제빵 전문회사입니다.
1984년 보다 전문적인 제과·제빵 업체로 발돋움 하기 위해 별도의 회사로 분리독립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최고의 제품"만을 만든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90년도에 들어서는 제조기술의 국제화를 위해 프랑스 최고급 식료품 회사인 HEDIARD (에디아르)사와 기술을 제휴하여 프랑스 본고장의 빵맛을 우리나라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신라명과 제품을 만나보세요. 한차원 다른 빵의 세계를 경험하실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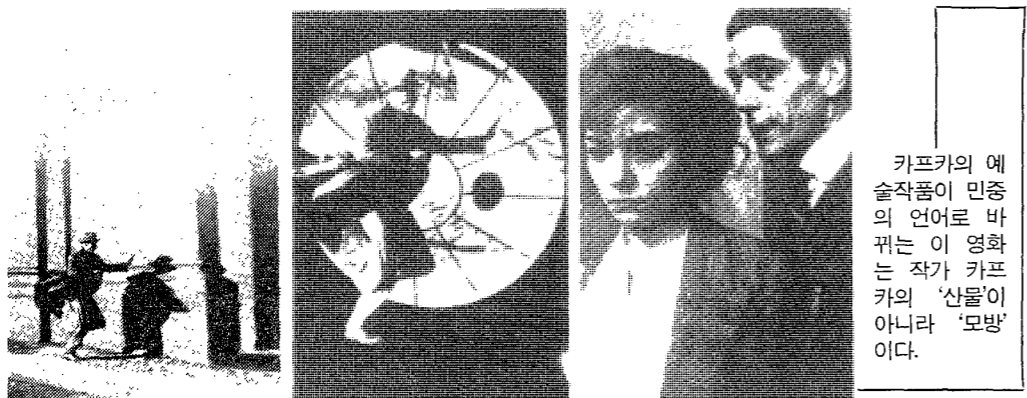
신라명과 Family Brand



영화의 패러독스

스티븐 소더버그 '카프카'

표류하는 현대인 정신상황 그려 '가상현실' 넘나드는 포스트 모던 카프카 해체...평범하게 재구조화



카프카의 예술작품이 민중의 언어로 바뀌는 이 영화는 작가 카프카의 '산물'이 아니라 '모방'이다.

인간이 공동생활을 원활히 하기 위해 결속한 조직이 오히려 인간 개개인의 삶을 구속한다면 그런 조직이 억압의 지옥이 아니라 현대인에게 있어 지옥은 바로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는 조직통제사회를 말한다.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의 '카프카'는 카프카의 일생, 그의 작품 세계, 독일의 당시 사회상, 미래공상과학적인 시각을 융합하여 현대인과 조직사회의 갈등을 실감나게 그린 가상영화이다. 시대는 1919년이나 1차대전이 끝난 직후이고 독일은 바이탈 공화국의 말기 중상인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불안한 심리상황이 전개되었다.

주의, 기계주의의 혁명적이며 부정부추적인 전위예술이 유행하였으며, 당시 독일표현주의는 다가오는 자본주의 물질사회의 공포와 왜소해진 인간의 존재를 표출해내었다.

히틀러의 나치즘이 서서히 민중의 기밀꽃 없는 심리를 몰아가기 시작했는데, 독일에서 전체주의가 싹튼 것은 이러한 불안한 시대상황과 극심한 경제적 난국에서 필연적인 것이었다.

이 영화는 당시를 배경으로 현대인이 좌표없이 표류하는 미로와 같은 정신상황을 그리고 있다. 전체주의의 발흥과 더불어 지하에서 꿈틀대는 인간적인 혁명주의를 추적한다. 주인공 카프카는 자신의 작품속에 형성된 '가상현실'의 세계

를 이 영화속에서 넘나든다. 그런 점에서 이 영화는 포스트 모던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도 있었다.

카프카의 위대한 예술작품은 여기서 낱말이 해체되어 평범한 현대인이 공유할 수 있는 민중의 언어로 재구조화된다. 우리 이 민중을 반드시 작가 카프카의 산물이라고 기억하지 않아도 좋다. 카프카의 모방이라고 해도 좋다. 중요한 것은 전체주의, 독재에 대한 끊임없는 저항의 영연의 이야기이변 좋은 것이다. 어느 시대건 조직의 거지된 방향과 불의를 거부하는 호소는 지속되는 것이니까.

정재형 (예술대 연영과 교수·영화평론가)

◇일본대중문화 개방 논의

논의 핵심, 찬반론에서 대안 마련으로 "민족 감정 진짜모습 찾는 것 중요"

지난 1월 31일 공로명 주일대사가 일본대중문화에 대한 개방의 필요성을 공언하고 문화체육부에서는 2월 24일 일본의 대중문화를 단계적으로 받아들일겠다는 발표를 했다.

구체적인 개방시기는 오는 6월까지 일본의 문화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여론을 토대로 결정하겠다고 한다.

개방내용은 1단계로 국제가요제와 문화행사로서 일본어 가창, 일본 배우의 극산 영화 출연, 한일 합작영화 제작을 허용하고 2단계로 일본어 대중가요 가창과 음반수입, 일본과 제3국간 합작영화 수입을 허용하며 3단계로 극영화 수입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또 일본 문화는 내용이 건전한 것을 선별해 수입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후 정치권, 언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고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30년동안 계속되던 문화개방 찬반론에서 더 나아가 한류의 논의가 계속됐다. 문화수입론에서 찬반대립은 더 이상 도음이 되지못한다는 과거의 반성에서 도출된 결론인 것이다.

지난 2월 5일 한겨레신문에 실린 리영희(한양대)교수의 논단을 살펴보면 일본문화에 대한 우리사회의 '이중성' 양면성을 버리고 보다 적극적인 사고로 개방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개방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일본에 대한 국민감정을 우선순위로 잡고 있고 '이치는 시기상조'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보이는 부분에서나 보이지 않은 내면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이들이 찾고 있는 '이중성'이란 개방을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는 찬반론 속에서도 사회에 널리 퍼진 일본식 상품들의 범람을 말한다. 문화개방으로 수입되는 일본문화에 극히 생소할 것은 별로 없다. 이미 유행하고 있는 일본식 패션, 어디서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가라오케', 청소년들이 찾아다니는 만화방엔 일본에서 수입된 만화가 가득 쌓여 있다.

그뿐 아니라 기업의 경영방식도 일본의 그것을 모방하는 등. 순수예술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개방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현재, 음성적으로 침투한 일본문화의 심각성은 '대단하다'고 격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얼마전 '교수신문'에 실린 기사에서는 일본에서 출판된 전문서적을 가위질하여 자신의 이름을 달아 책을 내는 수수의 교수를 지적한 바 있다.

일본에서 자연과학분야만큼이나 발달해 있는 출판문화가 개방이 통제되었던 그동안 약용되었으나 개방의 한 이점으로 제도적으로 규제하게 됐다는 여론도 일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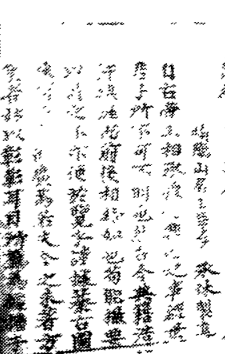
문화체육부에서 구체적인 개방시기를 6월까지라고 밝혔고 여론은 그 근거로 삼겠다는 발표를 했다. 찬반론의 입장이서가 아니라 문제에서 연구해야 할 것은 불타게 관여가 물리는 '캣츠'와 '가부기', 우리나라 여성이 스스로 표지모델이 되고싶어하는 '보그'지의 '논노' 지등, 이들중 한쪽에만 개인되는 민족감정의 진짜모습은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유리 기자)

동국기네스

1 제왕운기 - 중앙도서관 소장품 (보물 제895호)

'동국기네스'는 교내에서 문화적 가치를 가진 유물이나 학교소장품 그리고 알릴만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편집자)



본교 도서관 소장품중 가장 오래된 책은 보물 제895호로 지정된 '제왕운기'이다.

제왕운기는 1287년(충렬왕 13년)에 이승휴가 쓴 역사서를 상하권으로 모아낸 책이다.

상권은 중국역사 요점을 우리나라 역사를 각각 엮어놓았다. 제왕운기의 저술동기는 원나라의 침략과 정치적 간섭에서 기인하는 현실의 모순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권의 2부말미에서 밝히고 있다.

이승휴는 제왕운기를 2권으로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따로 정리한 것은 중국과 우리나라가 얽혀 구별되는 생활영역을 나타내는 것이라 한다.

발행물 우리역사에 최초로 포함시킨 제왕운기는 민주가 우리영역이었음을 표상하고 한국사의 시작이 단군부터임을 인식시킨 책이다. 제왕운기는 1287년에 출간되고 1360년(공민왕 9년)과 1413년(태종 13년)에 증간되었다.

본교 도서관 소장품은 인쇄상태로 볼때 여말선초에 인쇄된 것으로 보이며 발문·후제·간기등을 갖추고 있어 인쇄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고 한다. (문화부)

메이리 국제화

있다. 미국 제작사와 스템, 배우들이 몰려와 영어로 공연중인 '갯초'의 무대는 연일 인산인해를 이룬다. 주춤하던 국내대기업은 흥행성능은 공연을 직수입해 관람료·평가에 바쁘다. 국제화의 사전행사 무대로 수입공공과 고양이가 흡수하고 있는 판이다. ▲시중에 판매되는 양악 대부분이 외국상품이라는 것을 상표명으로 바꾸어 짐작하고 있을 것이다. 그나마 로열티나 기술비중도를 국내제작사에서 지급하던 것도 이제는 로슈니 바이얼이나

외국기업이 직접 한국에 지사를 두고 판매를 시작하고 있다. 사상 외화는 이제 옛날이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호전되고 있다. 참가자로 목줄은 곳은 매매가 활발하다. 외국기업들이 값에 상관없이 사들이고 있다고 한다. 유명백화점 1층에 들어서서 화장품코너는 이제 외국 메이커들이 직접 매장을 가지고 판매를 시작한다. 백화점층에서 극산화장품회사의 매장 임대계약을 연장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당연히 소비자 구매욕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UR시대 파고는 시작부터 거칠고 매섭다. 문화, 생활경제 구석구석까지 적시고 있다. 독자적인 경영방식과 기술을 가져야 한다고 외치는 정부의 목소리는 두통약에서부터 시작해 햄버거체인점까지 앞장서 수입하는 대기업앞에 무력하다. 결국 모르고 수입품을 구입하는 국민만 국제화시대에 뒤떨어지고 있다. (가)

문화단신

새로 나온 책

최경인 (39)



졸업 입학선물은 동아프라임영한사전과 동아새국어사전으로

입방방법이 달라지듯 영한사전 선택도 달라져야 합니다.
단어의 변천단계와 다양한 표현 예문으로 새로워진 입시제도에 맞춰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동아프라임 영한사전 - 시사, 경제, 문화, 예술 등, 시사어 및 장르별 용어 해설집을 부록으로 엮어 중·고생 및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사전입니다.

- 국내최대의 17만 5천어휘 수록
- 실용적 용례와 다양한 표현 예문
- 국내최초 매킨토시 편집으로 깨끗한 활자와 인쇄
- 시사어 및 장르별 용어집 부록
- 중요단어 의미변천 단계 요약
- 시사분야의 신어 5000어 수록
- 어형변화, 파생어 어법 관련 문법 사항 별도 표시
- 찾아보기가 편리한 '반달책인' 프라임 영한사전'이 새로 나왔습니다.

휴 프라임영한사전

영한사전은 동아프라임영한사전 국어사전을 좋아합니다.

우리의 고유의 다양한 뜻과 의미를 제대로 살렸습니다.

- 1989년에 시행된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1990년에 발표된 (표준어 모음)에 따라 표기
- 1986년 개정 고시된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정확한 발음 표기
- 표준 발음법에 따른 정확한 발음표기
- 학교문법에 따른 문법체계정리
- 다양한 뜻 감각에 따른 적절한 활용례
- 동의어·유의어·상대어등 관련어 제시
- 살아 숨쉬는 생활언어 표기에 주력
- 현대적 의미를 살린 독창적 어휘 풀이
- 찾아보기가 편리한 '반달책인' 새국어사전'이 새로 나왔습니다.

휴 새국어사전

동아출판사
문의: (02)862-5439

한글대사전 2432 65,000원	(학)새국어사전 2684 20,000원	(학)프라임영한사전 2976 19,000원	프라임영한사전 2904 17,000원	현대영한사전 1264 9,500원	신영소사전 904 9,000원	신영소사전 1566 12,000원	최신한영사용어사전 1344 23,000원	새국어사 832 5,500원
한글중사전 1616 40,000원	(학)새국어사전(한글제어) 2684 20,000원	(학)프라임영한사전 2976 19,000원	현대영한사전 1264 9,500원	현대영한사전 960 8,500원	신영소사전 780 9,000원	신영소사전 1186 11,000원	한대어사전 18,000원	(학)새국어사 832 5,500원
새한어사전 2432 22,000원	프라임영한사전 2976 19,000원	프라임영한사전 2976 19,000원	현대영한사전 1264 9,500원	현대영한사전 960 8,500원	신영소사전 780 9,000원	신영소사전 1186 11,000원	기초영한사전 382 5,500원	(학)새국어사 832 5,500원
새국어사전 2448 17,000원	프라임영한사전(가) 2704 19,000원	프라임영한사전(가) 2704 19,000원	현대영한사전 1264 9,500원	현대영한사전 960 8,500원	신영소사전 780 9,000원	신영소사전 1186 11,000원	영어문법사전 248 5,000원	한국문화사정사 704 45,000원
새국어사전(가) 2448 19,000원	프라임영한사전(가) 2704 19,000원	프라임영한사전(가) 2704 19,000원	현대영한사전 1264 9,500원	현대영한사전 960 8,500원	신영소사전 780 9,000원	신영소사전 1186 11,000원	중학영어사전 766 7,500원	